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일 시 | 2014년 6월 13일(금) 14:00~17:00

장 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교총회관 2층 외솔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세/부/일/정/

14:00~14:10	☞ 개회식 - 인사말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10~15:10	☞ 발 표 사회 : 박 정 배 (순천향대학교 외래 교수) ■ 창조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개념 - 발표자 :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장영화 (OEC:open entrepreneur center) 대표 ■ 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운영 체계 - 발표자 :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박 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한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운영 실태 - 발표자 : 조성현 (창업진흥원)
15:10~15:30	☞ 휴 식
15:30~16:30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모형 - 발표자 :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주희박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 발표자 : 김세광 (고신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정주박사 (모든학교 연구소장) ■ 청소년 창업의 성공 및 실패 요인 - 발표자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30~17:00	☞ 종합토론 - 사회자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표자와 토론자, 외부 참석자 전원
17:00	☞ 폐 회

차 / 례 /

- 창조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개념
 - 발표자 :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장영화 (OEC:open entrepreneur center) 대표

- 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운영 체계
 - 발표자 :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박 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모형
 - 발표자 : 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주희박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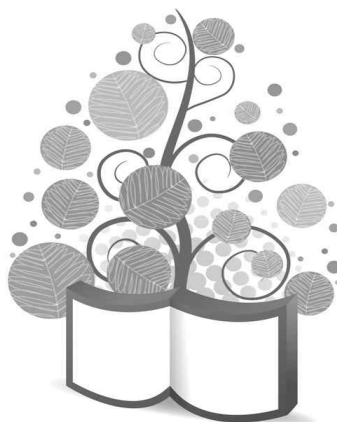
-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 발표자 : 김세광 (고신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정주박사 (모든학교 연구소장)

- 청소년 창업의 성공 및 실패 요인
 - 발표자 :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 표 1

창조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개념

- ▶ 발표자 : 천 정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 토론자 : 장 영 화 (OEC:open entrepreneur center) 대표



Young Entrepreneurship

(청소년기업가정신) 의 개념적 이해

천 정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 서 론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인재가 바탕이 된 산업을 전제하며 젊고 진취적인 인재를 그 핵심적 성장동력으로 본다(김승경·김명희, 2013). 최근 기업가(entrepreneur) 또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기업가(young entrepreneur) 또는 청소년기업가정신(young entrepreneurship), 나아가 10대 기업가(teen-preneur), 키즈기업가(Kidpreneur) 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 관련된다(Rispoli, 2013).

기업가정신은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여겨져왔으며 혁신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된다(Schumpeter, 1934; Aghion & Howitt, 1997). Steve Jobs나 Bill Gates 같은 사람들의 스펙터컬한 성공에 힘입어 기업가(entrepreneur)들은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하나의 아이콘 같은 신분을 획득했다. Zuckerberg는 자신의 기숙사에서 시작한 일로 Harvard 대학교 2학년을 중퇴하였으며 마침내 Facebook을 완성하였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그런 까닭에 글로벌경제에서도 경제생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받아들여진다(Islam, 2012).

또한,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날의 재정적 위기시기에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청년실업문제는 청년취업과 창업활성화를 해결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청소년 기업가정신(young entrepreneurship)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 새롭고 다양한 접근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서, 기업가정신이 점차 청소년들의 한 특성으로 자리잡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창업과 취업,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박 동, 2013).

실제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0여년 동안 기업가,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정향과 문화 등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기업가는 어떤 사람들이 되며, 기업가를 성공하거나 실패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내적·외적 요인들이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가와 어떻게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가정신이 각기 다른 의도된 성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wealth)를 가져다주거나, 자립이나 사회변화 또는 또 다른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김영환·양태용, 2013; Zimmerman, 2009).

그러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업가, 청소년기업가정신, 청소년창업 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간헐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hane, 2003).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개념적으로 분석(conceptual analysis)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 연구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서술한다: 1) 청소년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청소년기업가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3)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른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특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4) 그리고 성공한 청소년기업가들의 동인과 요인은 무엇인가? 서술과정에는 창의성/혁신성과 지도력 행위와 스타일의 역할로서의 기업가정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벤처(venture)의 성공과 실패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포함될 것이다.

2. 왜 청소년 기업가정신(Young Entrepreneurship)인가?

청소년기업가 또는 청소년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우리사회가 처한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일자리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관련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모든 일이 잘 되어 청소년 기업가들이 새롭게 대규모로 투입된다고 해도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처한 실업문제와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업가정신에 관심을 갖는 많은 평론가들은 청소년기업가와 관련한 몇 가지 “잠재적”

이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한 예로 최근 Blanchflower와 Oswald(2009; 188-189)는 청소년기업가정신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 ① 기업가정신은 혁신을 증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② 만일 새로운 청소년기업가들이 동료 청소년들을 고용한다면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새로운 중소기업들은 생산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④ 청소년기업가들은 특히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동향에 반응적이 될 수 있다.
- ⑤ 청소년들 간의 보다 많은 자영업은 그만큼 자기 의존성과 복리 증대를 수반할 수 있다.
- ⑥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가설적 혜택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청소년기업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와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주장이다. 실제로 기술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시장의 분절화와 탈규제의 증대 등과 같은 요인들이 더욱 기회를 촉진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경제적 능력을 갖춘 한 사회인으로서 자립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리와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창업이란 말은 창업을 하는 주체가 청소년을 의미하거나 청소년기부터 창업을 준비하여 창업을 하는 주체들의 사업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은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물론 청소년이 취업전선과 창업활성화에 뛰어들게 하는 시대적·사회적 배경으로 이해되어 왔다(김종재·윤종록·이경근, 2005).

- ① 기업가의 위상증대로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창업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하려는 포부를 갖는다.
- ② 정보통신, 특히 인터넷과 같은 아이디어나 서비스 제공방식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단기성장가능사업의 확대되고 있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야후, 구글, 카카오톡 등)

- ③ 단기간에 성공한 신화적인 창업사례들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을 창업성공의 무대로 유인하고 있다.
- ④ 소규모 투자로 승부할 수 있는 시대이며 성공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라면 쉽게 투자를 만날 수 있는 소규모 창업기회가 확대되는 환경이 점차 발달하고 있다.
- ⑤ 인터넷 등 정보통신환경의 발달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영업이 가능하며 시간에 구애 없이 주문이 가능하다.
- ⑥ 실리콘 벨리의 예에서 보듯이 많은 선진국가들이 젊은이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창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대학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청년실업현상, DIY 시대 즉,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 누구나 상품을 만들고 매매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창업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특성은 청소년창업 또는 청소년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에서의 참여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 기술(entrepreneurship skills)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urlong, 2013). 때로는 이러한 노력이 저수준(low-level), 위험(dangerous), 생존(survival) 기업가정신의 형태를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도의 사업체(enterprise)이 형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며 때로는 상당한 정도의 수입을 창출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등과 같은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기대하게하는 수단을 제공하기에는 불리한 조건들이 있지만 청소년기업가정신은 점차 지각 가능한 전략(sensible strategy)이 되고 있다. 기업가적 활동은 가족과 재정적 책임이 부족하지만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 그러한 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기할 사실이다(Furlong, 2008).

3. 청소년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무엇인가?

청소년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기업가(entrepreneur)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먼저 개념정의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이란 용어가 원어의 entrepreneur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 “entrepreneur”는 1437년에 처음으로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적극적이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a person who is active and achieves someth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유래가 된 불어는 동사 entreprendre로서, 그 뜻은 “무엇인가를 수행하다(to undertake something)”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Westhead & Wright, 2013).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정신 뿐만 아니라, 창업활동, 벤처정신 등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번역은 아니지만 별다른 대안적 용어를 찾기 어렵고 이미 널리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 기업가(entrepreneur)의 정의

영어에서 말하는 entrepreneur를 기업가로 이해하더라도 그 개념정의는 배경과 목적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17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entrepreneur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a person who takes risks)”으로 이해되었지만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었다. 18세기까지는 불어의 entrepreneur에 상응하는 영어는 따로 없었으며, 18세기 말에 가서야 부분적으로 businessman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Westhead & Wright, 2013).

오늘날까지 entrepreneur나 entrepreneurship에 대해 합의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표적인 몇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그 개념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8세기 entrepreneur를 연구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칸띠용(Cantillon)은 “기업가를 사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위험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송재길, 2011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는 1800년대 초에 한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entrepreneur를 “하나의 사업체(enterprise) 특히 계약자(contracting)를 맡아하는 사람이며, 자본과 노동 사이의

중간매개(intermediatory)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서술하였다고 본다(Hindle, 2008, p. 77).

또한, 1934년에 Schumpeter는 기업가를 “창조적 파괴자”라고 말한바 있다. 슈페터는 기업가들이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창조적 파괴과정(creative destruction) 또는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new combination)이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드는 경제발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생산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 이후로 이에 대해 어떤 하나의 단일한 개념정의도 그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한편, 세이(Say), 칸띠용(Cantillon)과 같은 학자들은 기업가란 생산요소나 생산과정을 조직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적 변화를 위한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셰이클(Shackle)은 기업가란 새로운 기회를 그 대가로 제공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상상해내는 고도로 창의적인 개인이라고 지적했다. 브로드스키(Norm Brodsky)는 “기업가는 새로운 벤처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하여 그러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성장시키며, 그 사업으로부터 나온 자금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김홍길, 2014 재인용).

오늘날의 여러 가지 개념정의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업이나 벤처를 책임지는 사람, 특히 위험부담이 성과와 관련되어 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Mirriam-Webster 사전에 따르면, 기업가는 “하나의 사업이나 기업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른 정의로는 기업가는 야심 있는 하나의 리더이며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을 찾기 위해 자원을 결합하는 사람으로 본다(Westhead & Wright, 2013).

최근의 연구에는 이 같은 정의보다 더 광범위한 일들을 수행하는 자를 기업가라하며 첫째, 기회를 인식하여 포착하며 둘째, 포착한 기회를 사업으로 조직하여 시장 지향적으로 전환시키고 셋째, 자본을 출자하여 가치를 추구하고 넷째,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쟁시장에 대한 위험을 추정하고 다섯째, 위험을 극복하는 노력으로부터 보상을 추구하는 혁신자이며 개발자이고, 사업 세계를 변화시키는 매우 공격지향적인자로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진부화된 능력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라고 한다(조건목, 2008).

2)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개념

기업가에 대한 개념과 같이 “기업가정신”의 개념정의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기업가에 대해 깡띠용(Cantillon)이 정의한 위험부담자로서의 기업가 이론은 나이트(Knight)에 의해 기업가정신으로 발전되었다. 나이트는 “기업가란 궁극적으로 사업을 통제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책임지며, 이들 간의 차액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윤은 경제활동의 수행과정에서 여러 대안들의 성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김홍일, 2014, 재인용).

Hisrich와 Peters(1989)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은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가치를 가진 무엇인가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그에 따른 재정적, 정신적 및 사회적 부담을 전제하며, 재정적 개인적 만족이란 보상(reward)을 받는다”고 정의한다(p. 6). Tan, Williams, 그리고 Tan (2005)은 기업가정신이란 “위험에 직면하여 시간을 두고 혁신을 통해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p. 357)으로 정의한다.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기업가정신의 교육에 관한 접근법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적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다(Van der Sijde, Ridder, Ballauw, & Diensberg, 2008).

첫째 접근법은 “기업가정신 = 기회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기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데 이는 “기회 인식(opportunity recognition)”에 관한 문헌에 기원을 두고 있다. 교육 내용의 초점은 그 과정에 있으며, 기업가들은 이러한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서의 기업가정신교육은 시장에 기회를 가져다주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둘째 접근법은 “기업가 정신 = 역량의 셋(set)”으로 보는 실제적인 것이다. 초점은 기업가적 과정을 끌어가는 기업가의 역량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법은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며, (학습 성과로서의) 기업가의 행태적 목록일람(repertoire)의 확장에 초점을 둔다.

셋째 접근법은 “기업가정신 = 창업하거나 중소기업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기업가 정신을 하나의 회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 그 과정은 재정지원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창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중소기업의 운영으로 보는 것은 주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MBA 교과과정에 사용되는 접근법으로

새로 만든 기업에서 여러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이 벤처(venture)설립의 하나의 과정 또는 단계로 이해한다. Baron(2007)은 기업가정신의 과정을 세 개의 기본적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각 단계는 나름의 활동이나 하위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기 나름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가지고 있다.

첫 단계는 착수 전(pre-launch)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기업가적 벤처를 실제로 착수하기 앞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단계에서의 활동이나 하위 단계들에는 기획의 확인, 그러한 기획에 대한 최초의 평가, 진행해 나가는 분명한 의도가 정의되고 세팅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필요한 자원을 모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착수(launch) 단계에서는 대체로 벤처 설립의 첫해를 말하게 되는데, 기업가들이 실제로 하나의 기업가가 되는 때를 말한다. 착수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가장 잘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조직화하는데 사용된다. 일단 조직이 실제로 착수하면, 그 다음에는 기업가들은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벤처를 운영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까지 맡아하게 된다. 착수단계 동안에 일어나는 활동이나 하위 단계는 벤처에 대한 법적 형태를 선택하고,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쟁적 특성을 보호하고, 최초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첫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는 하나의 벤처는 착수 후(post-launch) 단계로 진입한다. 하나의 설립된 기업으로서 그 하위 단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여기에는 갈등 처리, 협상 수행, 다른 것에 영향을 주거나 동기를 주는 것, 고용자를 늘리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일 그리고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창출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단계들은 성공적인 벤처들에게는 중요하며 각 단계는 문건에서 나타나는 것 보다는 훨씬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Baron, 2007). 각 단계들은 기간이나 활동이 복잡성 등에서 매우 다양하며,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는 동시에 발생하거나 기업가들이 조직을 만드는 일을 끝낼 수 있게 하는 한편,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만든다. 반대로 시도가 잘못되었다면, 단계를 뒤로 가게 할 수 도 있으며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자원을 재평가하도록 하기도 한다. 착수 전 단계가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준비되고 단지 몇 개월 만에 성공적이 될 수도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정의는 이상에서 고찰한 것 외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제시된 여러 관점과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기업가정신이란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는 기존의 가치에 덧붙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태도와 접근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기업가정신이란 모험적 기업의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려는 능력과 의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김홍길, 2014).

3) 기업가정신의 유형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이란 용어의 의미를 좁힌다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가정신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예의 하나로 전통적 기업가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라고 정 용어화되는 것의 차이점이다. 이 주제에 복잡성을 추가하는 일종의 중간 개념으로는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라고 불리는 것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모두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전통적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은 역동적으로 각기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기업체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기업체를 맡아하고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는 불확실한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행동을 갖는 것이다. 전통적 기업가는 이러한 위험과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전통적 기업가정신의 궁극적 목표는 부의 축적과 자립으로 이해할 수 있다(Tan et al., 2005).

스펙트럼의 다른 한 끝에는 그 목적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노력에 따른 결과가 사회 내에서 의미 있고 측정가능한 차이점을 되는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유형의 기업가정신이 있다. Tan 외(2005)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나 사회의 한 부문이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을 갖는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는 것이다(p. 658).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는 아마도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기업가적 원칙을 사용하여 사회적 변화를 시작하려는 하나의 벤처를 조직하고 창출하며 관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본다. 그 반면에 전통적 기업가는 전형적으로 수입·지출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며, “사회적 기업가는 성공을 이익과 대가에 추가하여 그 또는 그녀들이 사회에 주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Tan 외(2005)의 개념 정의는 사회적 변화는 단지 사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회와 ‘함께’ 참여해야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다양한 민간 및 공공 부분의 직업에서 일하며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변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아이디어의 또 다른 변용은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라고 알려진 것이다. 고도로 가시적인 개인과 조직은 창조적 자본주의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목표가 전통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조합이다. 창조적 자본주의는 시장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 확장하는 시도이며, 그럼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이익을 전환하는 것이 주 책무인 사업들은 또한 생산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혜택을 주기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예를 들면, 생산품에서 나온 이익의 일정 몫을 자선을 위해 기부하는 조직은 이러한 창조적 자본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 청소년기업가(Young Entrepreneur)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기업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알아보고 그 유형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청소년기업가 또는 청소년기업가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기업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는 기업가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기업가들을 성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Mitton(1989) 기업가들 또는 기업가적 정신(entrepreneur spirit)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이들은 큰 그림 같은 관점을 갖는다. 둘째, 이들은 독특한 기회를 착상하며 그러한 명분에 전적으로 매달린다. 셋째, 기업가들은 완전한 통제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며 종종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 넷째, 이들은 불확실성을 즐기고 역량을 고맙게 생각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본질의 특성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기회에 대한 갈망과 애착, 집요한 추구(obsession to opportunity)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새로움을 향한 모험과 탐험의 여정(entrepreneurial journey)이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지향한다(배종대 · 차민석, 2009; 김홍길, 2014). 기업가정신은 인간의 창조적 행동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며, 무조건 위험에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리고 재무적인 “계산된 위험

(calculated risk)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자원보다 기회를 먼저 생각하고, 기회포착에 더 중점을 둔다(배종태, 2009).

McGrew(2001)는, 많은 연구들은 고등학생들이 자신만의 기업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20여년 전에도 한 연구는 Gallop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의 고등학생들이 기업가가 되는 것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Nelton, 1995).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성공적인 기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했다. Kaufman 기업가정신 지도력 센터와 같은 일부 기관은 교육과 기업가들을 위한 지지와 교육자료, 세미나 및 워크숍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의 기업발전센터와 상공회의소 등에서는 교사와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에서 고찰하는 내용은 이와 같이 청소년이 하나의 기업가가 되는데 관련되는 특질과 특징들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것들을 제시한 것이다.

1) 개인적 특질과 역량

(1) 개인적 차이점

기업가로서의 성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적 특질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기업가정신에서는 개인적 특질과 성공 간에 관련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기업가정신과 개인성에 관한 논의에서 Rauch와 Frese(2007)은 이러한 개인적 차이를 기업가정신과 가장 가까운 연결을 갖는 것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소기업 소유주들은 성취에 대한 욕구가 보다 더 높으며, 그것이 벤처의 성공에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Rauch & Frese, 2007). 기업가를 볼 때 조사하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경향이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정(+)적이며, 다소 약하다. 대신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며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성 변수로서 개혁성은 또 다른 정(+)적 관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가가 되는 가능성과 혁신성이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성공과도 관련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과 관련되는 것으로 논의되는 개인적 차이와 특질에는 또한 통제력(control)과 자기효율성(self efficacy)이 포함된다. 통제력과 관련한 것은 자율이라는 구성요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내적 통제력을 가진 개인은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외적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경향이 더 많다는 점과는 다르다. 자기효율성과 긍정적 성과 간의 관계성도 모든 고용자 유형에서 강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들의 성공을 예측하는 데에도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uch & Frese, 2007).

(2) 역량

Markman(2007)은 개인적 차이점과 특질에 더하여 지식, 기술 및 능력이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여 성공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세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각각은 무엇이 기업가를 도와 성장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력을 제공한다.

지식은 특별한 지식으로서 보통 개념화된다. 다른 말로는 어떤 구체적인 기호나 자원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그러나 지식은 또한 그것이 기업가정신의 지속적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술은 보통 훈련과 실천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식의 파생물이기도 하고 능력의 개발에도 통합적으로 관련된다. 기술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본다(Ensley, Carland, & Carland, 2000). 기술적 기법(technological skills)은 벤처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다루는 기술을 말한다. 개념적 기술(conceptual skills) 또는 지식(knowledge)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생산품과 서비스를 위한 시장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또는 인적 기술(human skills)이라는 것은 기업가들의 지도력, 피고용자들의 동기, 그리고 조직 내외의 네트워킹과 관련된다.

능력(ability)은 “자산과 자원(지식을 포함)을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이윤성(profitability)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으로 통합하는 태도”라고 본다(Markman, 2007, p. 79). 기술이 훈련과 실천에 관련된다면, 능력은 학습과 경험에 관련된다. 기술과 지식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고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과 관련된 것 중의 하나가 인지성(cognition)이다. 인지성은 자각, 인식, 사고 및 판단 등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는 앎의 정신적 과정이다 (Markman, 2007).

2) 성공적 팀 창업가의 핵심특성

한편, 기업가적 과정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벤처투자자들은 단독 창업보다 팀 창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팀을 구성할 때에는 시너지, 팀워크, 상호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Timmons & Spinelli(2009)는 성공적인 기업가 및 팀의 핵심특성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① 배수의 진을 치고 사업에 임하는 헌신/몰입과 결단성, ②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과 기회에 대한 집착, ③ 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력과 적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바람직한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사소통능력, 심리적 안정성, 건강,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도 기업가의 바람직한 태도에 포함되는 중요한 특성이다.

<표 1> 성공적인 팀 창업가의 핵심특성

1. 헌신/몰입과 결단성(Commitment and Determination)	
결단성	
규율/원칙성	
끈기,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집요함	
전적인 몰입, 자발적 희생	
2. 용기(Courage)	
도덕성	
두려움 없는 실험정신	
실패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위험상황에서도 생기는 강한 호기심	
3. 기회에 대한 집착(Opportunity obsession)	
기회 파악능력	
고객욕구에 대한 지식	
시장 지향성	
가치창조 및 확장에 대한 집착	

4. 위험, 모호성, 불확실성의 수용(Tolerance of risk/ambiguity/uncertainty)

계산된 위험감수, 위험 공유/분산/극소화

불확실성과 비체계적 구조에 대한 수용/적응

스트레스와 갈등의 수용

문제해결 및 대안 조정 능력

5. 창의력, 자생력, 적응력(Creativity, self-confidence, and ability to adapt)

비전통적인 열린 사고, 수평적 사고, 혁신성

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 추구

적응력

개념화 능력과 꼼꼼함

6. 남보다 앞서려는 동기(Motivation to excel)

목표/결과 지향성, 성취와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

타인에게 경쟁자보다 지원자라는 인식을 주는 능력

자신의 강점/약점 파악 능력

자신의 주관과 유머감각

7. 리더십(Leadership)

솔선수범

내재론자(남의 탓보다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

성실성과 정직성, 신뢰감, 인내력

팀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웅을 만드는 능력

출처: 배종태·차민석(2009); 김흥길(2014). 자료원: Timmons & Spinelli, 2009.

5. 청소년기업가(Young Entrepreneur)를 성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청소년기업가의 성공법

최근 청소년기업가의 한사람인 리스폴리(Rispoli)는 8세부터 35세에 이르는 청소년 또는 청년기업가 100명을 면담하여 그 중 58명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업가: 청소년기업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삶, 성공, 번영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수 있는가 (The young entrepreneur:

What YOUNG entrepreneurs can teach ALL people about life, success, and prosperity!)”라는 책을 집필한 바 있는데, 성공적인 청소년기업가의 마인드셋과 성공법(recipes)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Rispoli, 2013, pp. 11-23).

우선, 기업가의 마인드 셋(mind set)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이며,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이해한다. 기업가는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며, 자기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에 기여하는 사람이며, 기꺼이 일을 창출하고, 배우고 발생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성공한 청소년기업가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가 또는 성공적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용기, 결정성, 환경, 기회, 열정, 행동력 등과 같은 여섯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용기(courage)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열성을 말한다. 일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의 성취를 이루도록 도운 열쇠의 하나는 이러한 용기를 갖는 것이다. 바로 지금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제 시작하라. 이것은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이다.

둘째, 결정성(determination)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 능력이며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다. 실패하면 한발 물러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성공적인 사람은 패배를 성공을 위한 기회로 본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성공하도록 결심한다. 따라서 그렇게 될 때까지 거듭 시도할 것이다. 실수는 위대한 스승이다. 실수는 이전에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을 예기치 않은 기회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실수는 또는 큰 배움의 기회이며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환경(environment)은 자신의 주위를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긍정성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들이다. 사람이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간다.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기분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일 하거나 시간을 보내면 우리 자신도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있을 것이다. Bill Gates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다른 해박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Microsoft의 창출은 이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와 같은 많은 사례들이 있다. 성공적이고, 추진력 있으며, 야망 있으며 긍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만큼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넷째, 기회(opportunity)는 기회를 찾을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없는 일이나 상황들 사이에 연결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자신이 어떤 일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기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중의 가장 큰 부분은 창의적으로 되는 것이다. 창의성이란 어떤 사람은 타고 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창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섯째, 열정(passion)이다. 자신의 열정을 찾아내고 모든 일에 쏟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꿈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바람과 야심은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성공적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성공을 위한 불타는 바람을 개발하고 야심적이 되어야 한다. 단지 돈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에 열정적으로 임하면 돈은 따라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행력(action)이다. 이것도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일한 특징이다. 위대한 생각은 실행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실현 시키게 된다. 비록 아이디어가 별 볼일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실현시킨다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청소년기업가의 성공에 이르는 단계

한편, 또 다른 청소년기업가인 사비룰 이스람(Sabirul Islam)은 25명의 청소년기업가들을 연구하고 면담하여 “청소년기업가의 세계(Young entrepreneur world)”라는 책을 발간하였는 바, 청소년기업가가 되는 15가지 교훈(top 15 lessons)을 성공사이클(cycle of success)라는 용어로 제시하였다(Islam, 2012, pp.242-247). 이스람은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기업가들은 누군가로부터 착수하게 되는 영감을 얻었으며, 모두 교육을 통해서든 시험적 시도와 실수를 통해서든 그 어떤 지식과 이해를 얻는 과정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이들의 성공은 기회를 창출하고 그것을 두손으로 꼭잡아 채는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공한 청소년기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된 15가지의 교훈은 성공사이클을 가지며, 이는 “발견(discovery), 개인적 브랜드화(personal branding), 그리고 시작하기(getting started)”의 세가지 부문으로 구분한다.

(1) 발견

첫째 모든 성공적 청소년기업가들이 자신의 기업을 갖고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진 것은 자기 신념(self belief)이었다. 자기 신념 없이는 성공을 성취할 희망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들의 앞에 놓인 장애물과 도전이 무엇이던지 긍정적 접근법을 갖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신념을 개발하는 핵심적인 것이었다.

둘째 인터뷰를 통해 동기(motivation)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를 가져야 하며 그래야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동기는 하나의 추진력(a driving force)이며 계속 일을 끌어나가고 시도하게 한다.

셋째,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성공을 위한 동기를 가졌다면 미래를 위한 비전(vision)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전은 장기적이지만, 작은 목표들로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성취가능하게 보여야한다. 인터뷰한 모든 성공한 청소년기업가들은 분명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넷째,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었다. 청소년기업가가 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은 모두 도움(help)을 필요로 하였다. 멘토든,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목적을 향해 첫발을 내디딜 수는 있지만,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도움을 요청해야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도움을 받는 일에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섯째, 자신의 내적 능력과 개인적 기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획(a simple plan)을 가져야 한다. 기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 목표, 일정, 보상과 위험부담 등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다면 된다. 성공적 청소년기업가들의 대부분은 성공적인 기업을 일으키거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부(wealth)도 창출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적 브랜드화

무엇에서 자신이 뛰어난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견한 이후에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강한 정체감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를 개발하는 과정은 느리게 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인내가 요구될 것이다.

첫째 단계는 자신의 개인적 브랜드의 토대(foundation)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필수적이다. 우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자신의 이미지나 스타일, 어떤 모습 등을 만들려고 시작했으면 그것을 고수해야한다. 다음으로는 항상 브랜드 비전(a brand vision)을 가져야 한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어디로 향해 가려는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더 많이 자문할수록 자신의 개인적 브랜드의 강점과 깊이를 더 많이 발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피치(pitch)를 가져야한다. 자기자신, 자신의 목적, 자신의 비전이 중요하고 서술하는 15초, 30초, 60초의 피치(pitch)를 갖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에서는 강한 이미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기회는 자신에게 쉽게 올 것이며 구태여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강한 개인적 브랜드를 개발하는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궁극적 목적(ultimate goal)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브랜드로 정확히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그러한 자신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우며 자신을 뒤돌아 보는 일을 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자신의 특징적 판매 포인트 (unique selling point) 즉 USP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USP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다수의 군중으로부터 우뚝 서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USP인 것이다. 자신의 목표 대상을 아는 것과 자신의 개인적 브랜드가 그들에게 의미를 가질지 아닐지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넷째 단계는 가시성(visibility)에 관한 것이다. 즉, 자신을 널리 알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공한 청소년기업가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터 왔으며, 자신들의 가시성과 개인적 브랜드의 힘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눈에 띄었다. 그러나 가시성을 얻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명함을 주고받는 것 같은 단순한 행동도 가시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사회적 미디어의 효과적인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SNS의 힘이 대단한 것이 지금의 시대이다. 이 점에서 보면, 단순히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 이상의 보다 전문적 수준에서 Facebook과 Twitter를 사용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삶의 성취를 가져다주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지지 없이는 더 많이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삶에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멘토로부터의 지지, 자신이 네트워킹하고 있는 사람로부터의 지지 그리고 긍정적 접근법을 가진 일반 사람들로 부터의 지지를 얻는 것은 성공의 핵심이다.

(3) 시작하기

다음은 실제적인 기업을 가지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10가지의 교훈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10가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바로 11번째의 교훈인 창업 발상(business idea)단계로 뛰어들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11번째가 창업발상이라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research)는 것이 12번째 교훈이다. 연구라면 따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연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연구 없이 시장에서의 참된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성공적인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의 13번째 단계는 계획수립(planning)이다. 자신의 비즈니스 계획을 그리는 것은 중요하며 자신이 비즈니스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해준다. 비즈니스 계획(business plan)에는 요약, 개요, 아이디어, 마케팅계획, 재정계획 등의 다섯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하기의 넷째는 재정(finance)에 관한 것으로 전체 15개의 단계 중 14번째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체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면 바로 재정문제로 뛰어든다. 그러나 재정투자(funding)는 단순히 투자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는다면, 자신의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들의 대부분이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자신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가족, 친구, 금융기관 대출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투자에 대한 성공적 대가를 줄 수 있다는 절대적 확신을 가질 경우에만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의 15번째 교훈은 진짜로 하나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다(setting up a real business). 자신과 자신의 능력/기술을 발견하고 특징적인 사업체 아이디어로 강력한 개인적 브랜드를 가졌다면, 당연히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람(Sabirul Islam)는 인터뷰한 성공한 청소년기업가들이 이상에서 제시한 15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진행 속도는 사람에 따라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그 단계를 따라서 왔다고 결론 맺고 있다. 성공한 청소년기업가들은 모두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쫓아 왔으며 모두 양손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6. 결 론

창조경제의 국정전략은 청년취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전정신과 아이디어 창출력, 혁신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더욱 강조하면서 국가경제성장의 긍정적 동력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의 정신과 헌신을 교육하고 있다. 청소년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오늘의 청소년들이 처한 청년실업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기업가정신이 혁신을 증진하고 일자리창출과 고용창출, 청소년복지 등에 긍정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높게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교육은 그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기업가정신은 학문적으로나 현실 세계에서 많은 발전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기업가정신은 기회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이자 접근방법이며, 아울러 행동과 실행을 수반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은 기회로 인식하는 과정, 역량의 셋,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성취욕구, 위험부담의 감수, 개혁성, 통제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에는 지식, 기술 및 능력 등의 역량이 관련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최근의 성공한 청소년사업가들을 인터뷰한 연구들을 통해, 성공적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용기, 결정성, 환경, 기회, 열정, 그리고 실행력으로 대표되는 여섯 가지의 자질을 성공법으로 제시하였다. 그 자신이 성공적 청소년기업가이기도 한 이스람(Sabirul Islam)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의 신념과 동기, 비전과 도움, 단순한 계획을 발견하고, 개인적 브랜드화를 만들어 내면서, 창업을 하는 전체 과정을 성공사이클로 말하면서 15가지의 교훈을 알려주었

다. 이슬람(Islam)은 특히, 결론에서 6가지 P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긍정성(positivity), 열정(passion), 끈기(perseverance), 지속성(persistence), 인내(patience), 그리고 사람(people) 등을 포함한다.

이제, 이러한 청소년기업가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분야가 해야 할 책무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은 입시위주의 교육문제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사회환경에서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어린 나이에 무엇을 하겠는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하는 고정관념은 더욱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다. 이러한 장애물과 한계성들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정책과 실천현장의 노력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론과 실제의 모든 면에서 그 차원을 달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참고 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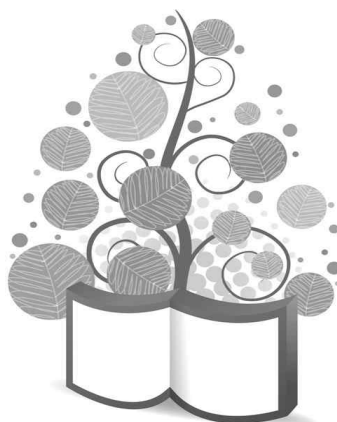
- 김승경 · 김명희(2013).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조성방안(창조경제 종합연구 13-01-23). 서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김영환 · 양태용(2013). 기업가정신 전문 유명 국제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 김종재 · 윤종록 · 이경근(2005).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 서울: 박영사
- 김홍길(2014). 기업가정신과 창업경영론. 탐복스.
- 박 동(2013). 창업정신 고취를 통한 청소년 도전문화 조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집: 꿈을 향한 청소년, 도전하는 청소년: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조성방안 세미나, 67-87.
- 배종태(200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육성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학술저널.
- 배종태 · 차민석(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 심포지엄. 중소기업청.
- 송재길(2011). 기업가정신과 혁신성과의 관계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건목(2008). 기업가정신이 동태적 능력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소식품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ghion, P. & Howitt, P. (1997).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IT Press.
- Baron, R. A. (2007). Entrepreneurship: A process perspective. In R. J. Baum, M., Frese & R. Baron (Eds.),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pp. 19-3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lanchflower, D. G. & Oswald, A. (2009). What makes a young entrepreneur? In Furlong, A. (Ed.) Handbook of youth and young adulthood: New perspectives and agendas(188-199). New York, N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Ensley, M. D., Carland, J. W., & Carland, J. C. (2000). Investigating the existence of the lead entrepreneur.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4), 59-77.
- Furlong, A. (2013). Youth studies: An introduction. New York, N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Hindle, T. (2008). Management ideas and gurus. London, GB: The Economist Newspaper Ltd.
- Hisrich, R. D. & Peters, M. P. (1989). Entrepreneurship: Starting, developing, and managing a new enterprise. Homewood, IL: BP/Irwin.

- Islam, S. (2012). *Young entrepreneur world: How 25 teen-entrepreneurs succeeded and left world leaders scratching their heads*. London, UK:Marshall Cavendish Business.
- Markman, G. D. (2007). Entrepreneurs' competencies. In R. J. Baum, M. Frese & Baron (Eds.)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 (pp. 67-9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Grew, L. (2001). Managing curriculum change. *Management of the business classroom*, National Business Education Association yearbook, No. 39. Reston, VA: National Business Education Association.
- Nelton, S. (1995). Help for teenagers. *Nation's business*. 83, 50.
- Rauch, A., & Frese, M (2007). Born to be an entrepreneur? Revisiting the personality approach to entrepreneurship. In R. J. Baum, M. Frese & Baron (Eds.)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 (pp. 41-6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ispoli, A. (2013). *The young entrepreneurs: What YOUNG entrepreneurs can teach ALL people about life, success, and prosperity!* Henderson, NV: Motivational Press.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enquiry into profits, capital,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ne, S. (2003). *A general theory of entrepreneurship*. Northampton: Edward Elgar Press.
- Tan, W. L., Willimans, J., & Tan, T. M. (2005). Defining the 'social' in 'social entrepreneurship': Altruism and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 353-365.
- Timmons, J. A. & Spinelli, S. (2009).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Y: McGraw-Hill/Irwin.
- Van der Sijde, P., Ridder, A., Blaauw, G., & Diensberg, C. (2008) (Eds.). *Teaching entrepreneurship: Cas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Rostock, Germany: Physica-Verlag Heidelberg(A Springer Company).
- Westhead, P. & Wright, M. (2013). *Entrepreneurship: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Zimmerman, J. (2009). Entrepreneurs on entrepreneurship: A research structure based on 12 practitioner case studies. *Journal of Business Case Studies*, 5(5). 69-78.

발 표 2

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운영 체계

- ▶ 발표자 : 박 선 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 토론자 : 박 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운영 체계

박 선 영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1. 서 론

장기화되는 유럽의 경기침체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확대에 의한 교류의 증가는 유럽인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를 생산해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변화를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로 보았고, 이러한 도전 과제가 혁신적이고 잘 교육받은(정규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 사람들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European Commission, 2012:5). 그 결과 유럽연합은 20세기까지의 교육 패러다임을 완전히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일례로 학교의 공교육이 더 이상 변화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학교밖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non-formal education)을 강화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류활동을 강조하여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세계화로 인한 교류의 확산은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만, 정체성과 소속감의 혼돈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으로서 한 국가의 구성원인 동시에 유럽연합의 구성원이라는 다중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가의 개입을 부당하게 보고 있는 경제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에서는 ‘제3의길’ 같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민운동을 통한 정부와 시장의 기능 회복이라는 대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윤선구, 2003). 유럽연합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않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기업가정신을 통한 개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능력 개발이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은 시장기능의 회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유럽연합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고에서는 유럽연합이 청소년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게 된 배경과 주요 국가별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연합이 경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병폐를 한국도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는 변화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 중의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 원고는 출발점을 두었다.

2. 유럽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

(The 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의 목적은 기업가정신을 널리 소개하고 진흥시키기 위함에 있다. 오슬로 아젠다는 2006년 유럽위원회와 노르웨이 정부가 주관한 ‘유럽의 기업가정신교육 ; 교육과 학습을 통한 기업가정신 진흥’이라는 학술대회의 결과물이다. 이 학술대회는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 교사, 관련 학자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유럽연합과 그 주변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리스본조약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럽의 균형된 발전과 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2006년데 유럽위원회가 ‘교육과 학습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이라는 논의의 후속작업이다. 논의의 목적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사례와 경험을 교환하자는데 있었다. 그 결과 학술대회를 통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

는데 필요한 지원정책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모두 6개의 영역에서, 유럽연합수준, 회원국 수준, 교육부 수준, 지방정부 수준, 학교 수준, 중개사무소 수준, 기업수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였다(EC, 2006).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이나, 국가별 수준 등의 논의 내용보다는 한국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다양한 영역별로 어떤 세부내용들이 포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리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 영역과 내용¹⁾

영역	내용
정책개발	①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정치적 지원 강조 : 리스본 조약의 실행 차원에서도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정치적 지원이 필요함. ②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리스본 조약 ²⁾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에 포함 ③ 국가수준의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개발 및 실시 ④ 유럽연합 수준과 국가적인 수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관할할 수 있는 기구 설치 ⑤ 유럽연합 회원국 내 전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⑥ 볼로냐 프로세스 ³⁾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실시 ⑦ 유럽 펀딩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증대 ⑧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평가제도 구축
교육시스템 구축	① 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과 활동 개발 ②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강조 ③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 유럽위원회의 교육과정 개혁에의 지원(리스본조약의 고등교육 체제 통합과도 같은 맥락) ④ 실천, 실습 중심의 교육방법 개발 지원 ⑤ 민간 기금 활용과 시범 사업 실시 ⑥ 기업가교육 함양 교육을 위한 재정 확충과 증대 ⑦ 대학에 관련 연구소 설립 지원 ⑧ 유럽연합 내의 회원국 간의 연계와 교류를 위한 통로 구축 ⑨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지원

1) European Commission(2006:86-92).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Fostering Entrepreneurial Mindset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Final Proceedings, European Commission,에서 연구자가 편집하여 인용함.
 2) 리스본 조약은 유럽의 정치공동체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럽의 정치통합을 위하여 고등교육 체제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도 유럽 전체 차원에서, 즉, 교육 통합의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3) 볼로냐 프로세스는 볼로냐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와 개혁안을 의미하며 볼로냐 협약의 목표는 유럽 국가내의 학술교류 증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고용증대 등이 있다.

영역	내용
교사 지원	①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②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담당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인센티브 부과 ④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교사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⑤ 교사들 간의 교류 지원 확대
학교에서의 기업활동	①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행동요소들을 포함한 활동(호기심, 창의성, 자율성, 주도권, 연대의식) ②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회 내 기업과 기업가들의 역할에 대한 인지 능력 개발 ③ 청소년과 청년의 성공 기업가 사례 소개 ④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교수법 개발 ⑤ 기업활동 프로그램 평가로 기업가 역량 측정활동 ⑥ 기업활동 중 실제 기업과 기업가와 만날 수 있는 활동 구성 ⑦ 기업활동 관련 동아리나 모임 지원 ⑧ 학교 졸업생이나 동문 중에 기업가를 찾아 연계 ⑨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소외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나 집중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제공 ⑩ 고등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학위과정이나 교과목과 연계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필요 ⑪ 고등교육과정, 특히 대학에서는 실제 기업을 만들고 경영하는 프로젝트 시도 ⑫ 대학생의 성공사례 소개 및 보급 ⑬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와 학위프로그램 제공(석, 박사과정) ⑭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⑮ 관련 활동 평가제도 도입
현장과의 연계구축	①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지원 ② 기업가들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구축 ③ 기존의 기업들의 학교 교육과정 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참여 및 모니터링 ④ 고용인들이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개발과 참여지원 ⑤ 기업가들에게 교수법 개발 기회 제공 ⑥ 기업가정신이 특화된 특성화 학교, 대학 양성 ⑦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실제 기업 활동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⑧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과 지원 센터 설립

영역	내용
의사소통 활동	① 유럽연합과 국가수준에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②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포상 ③ 국가별 혹은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잘된 프로그램 포상 및 우수 프로그램 선정 후 지원

오늘로 아젠다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 영역은 이후, 각국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과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개인 사업에 필요한 창의성과 진취성, 리더십과 연대의식 등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EC, 2006). 물론 개인이 직접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지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과 미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준비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로 아젠다에서 제시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단순히 창업교육이나 안내와는 구별되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오늘로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진로교육과정의 개혁과 진로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학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요구함으로써, 학교교육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업소개나 직업선택지도로만 국한되던 기존의 진로지도교육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로 아젠다를 통해, 유럽연합은 청소년과 청년이 유럽의 어디에서라도 필요한 직업역량과 기업가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국뿐만 아니라 유럽전역이 개인의 활동무대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리스본 조약을 실행에 옮기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유럽연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유럽전체의 경제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단순히 하나의 교육과정으로만 소개되지 않도록 유럽전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제 교육을 통한 기업과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EC, 2006). 그 결과 유럽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유럽경제가 요구하는 비슷한 수준과 역량을 갖춘 경제인을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럽의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단지 경제논리를 넘어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재해석 될 필요가 있다. 또 오늘로

아젠다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유럽의 경제, 정치, 사회 통합적 맥락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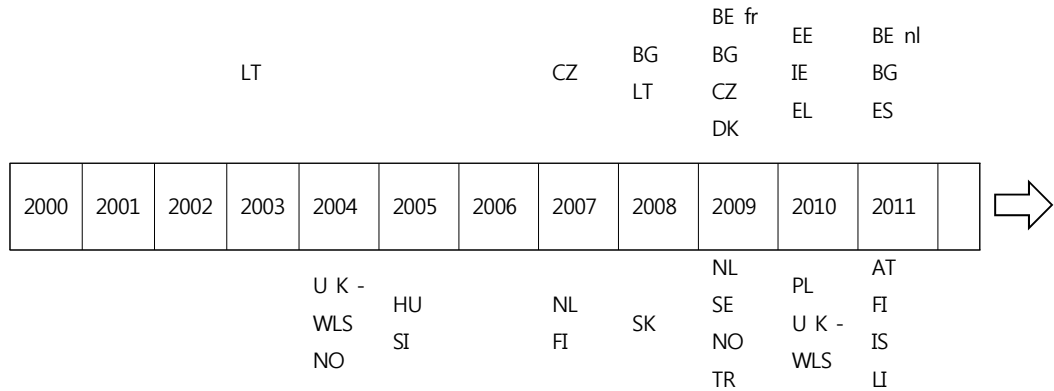
3. 유럽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실제

유럽연합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핵심역량중의 하나라고 판단하여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EC, 2012).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다양한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의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 되,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국가별 기업가정신 교육 정책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유럽위원회의 미래 전략중의 하나인 ‘2020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2020)’ 이라는 정책 비전하에 기업가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을 포함시켰다. ‘2020 교육과 훈련’ 정책의 3대 영역은 Youth on the Move,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Innovation Union인데, 이 모든 영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과 연계되도록 하였다(EC, 2012).

1) 국가별 정책수립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1) 유럽의 기업가함양 교육 정책 도입 시기

아래의 그래프는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정책이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정책과도 그 시기를 같이 한다.



[그림 1]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도입 시기⁴⁾

(2) 국가별 정책 유형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국가별 특성에 맞게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정책의 일부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진다.

①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단독 교육 정책

첫째, 별도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을 가진 국가는 모두 6개국(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이며, 2개 국가는 일부 지역(벨기에의 플라망, 영국의 웨일즈)에서만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EC, 2012). 국가별 정책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특징

국가 또는 지역	정책명	수립 시기	주관부서	내용 및 목적	기타
덴마크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 훈련 정책	2009	과학부, 기술혁신부, 문화부, 교육부, 경제부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기관에의 투자 - 관련 법, 정책 개발 계획 - 예산 분배 계획	

4) European Commission(2012: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에서 발췌하여 편집함.

국가 또는 지역	정책명	수립 시기	주관부서	내용 및 목적	기타
에스토니아	기업가정신함양교육 촉진을 위한 상호협정	2007	교육연구부, 경제소통부,상공회의소, 국가시험 및 자격증센터, 기업가협회	상호협정 체결 후상공회의소와 기업교육위원회는 기업가정신함양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	
리투아니아	• 경제문해와 기업가정신함양 교육 정책 • 2008-2012 국가 청소년 기업가정신함양 프로그램	2004 2008		• 2013-2012 국가교육 정책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 교육과 예산 지원 강화	
네덜란드	• 교육과 기업가정신 실행 프로그램 • 교육 네트워크 기업가 정책	2007 2009	경제부, 교육부, 문화과학부, 농업부, 자연식품부	• 교육기관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교육정책과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학교를 졸업한 이후 더 많은 청소년이 5년 이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	2000년대 이후 여러 부처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한 정책을 제시해오고 있음
스웨덴	• Budget Bill 2009	2009		•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학교 내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	
노르웨이	• ‘See the Opportunities and Make them Work’ • 기업가정신 교육과 훈련-의무교육에서 대학까지	2004 2009		• 기업가교육과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프로그램 다양화 • 모든 학교(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국가 또는 지역	정책명	수립 시기	주관부서	내용 및 목적	기타
벨기에, 플리망	2011-2014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 실행 정책	2011	국무총리, 경제농업부, 교육부, 고용부의 공동	• 청소년들이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도록 지원 • 교사대상의 기업가 정신 함양교육을 통해 교사 지원 • 창업이나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벨기에의 2020 경제 발전 계획의 일부에 해당 됨
영국, 웨일즈	청소년기업가전략 (YES : Youth Entrepreneurship Strategy)	2004		웨일즈 지역의 기업가 정신 함양교육 강화	현재 2010-2015 실행계획으로 진행 중

② 교육정책 하에서의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

위의 표에서 설명된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독으로 마련된 기업가 정신 함양교육이 아닌 국가 교육정책이나 평생교육정책, 청소년정책 등에서 청소년이 함양해야 할 핵심 역량개발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또 경제발전계획의 일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EC, 2012).

2006년 유럽의회는 평생학습을 위한 8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기업가정신이 7번째의 핵심역량이다. 이를 계승하여 국가의 평생학습 정책의 목적 안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이다(EC, 2012). 아래의 표는 국가별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이 포함된 상위 정책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표 3>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 상위정책과 내용

국가명	상위정책명	내 용
체코	평생교육정책(2007)	• 평생교육의 목적은 여러 문해능력의 개발과 재정적 문해능력(경제능력) 같은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음
벨기에	Community Policy (2009-2014)	• 모든 학교는 기업가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함
불가리아	•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Youth Policy (2009-2013)	• 기업가정신은 통합교과목의 형태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 가르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National Programme for Youth (2011-2015)	• 청소년의 개인적 발달과 경제적 웰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선 순위로 기업가 정신과 관련 기술 습득이라고 규정함
	• National Lifelong Learning Strategy (2008-2013)	• 방과후활동과 학교 정규과정 모두를 통해 통합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함
그리스	• strategy for the New School (2010)	• 유럽연합의 공동의 교육정책목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혁신, 창조성, 기업가정신을 포함하고 있음
핀란드	Five-year development plan for education and research(2011-2016)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세부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와 현장간의 협력을 강조함
리히텐슈타인	National Strategy on Education 2020(2011)	• 유럽위원회 교육과 훈련 2020 핵심전략의 7번째 핵심 역량인 혁신과 창의성 함양 목적의 일환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이 다루어짐

③ 경제개발정책 하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경제개발이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정책이 아닌 경제발전 전략 등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4> 경제개발정책과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국가명	정책명	내 용
스페인	2011 Plan for Entrepreneurial Support	• 경제에너지관광부는 2011년 기업가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교교육, 방과후 교육, 청소년활동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 그러나 이 교육의 목적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가 있음.
슬로베니아	Slovenia's Development Strategy(SDS),(2005)	2005년에 제시된 정책으로 2013년까지의 슬로베니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중요한 개발로 경제개발을 제시하였음. 양질의 직업과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이 포함됨
슬로바키아	National Reform Programme of the Slovak Republic 299502010	슬로바키아 개혁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으로 기업가양성 교육과 기술 개발, 중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 강화를 포함함.
아이슬란드	Iceland 2020 strategy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경제발전의 도모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 방법의 하나로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 교육이 제시됨.

2) 국가교육과정안의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학교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실시될 수 있다. 첫째, 독립교과목을 통한 교육방법이고, 둘째,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 실시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존 교과목 안에서 세부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학교가 처한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러한 교육과정의 제공여부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국가들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나누어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육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주로 통합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교육

과정이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어,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경우는 주로 필수교육과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로 사회과 교과, 역사, 지리, 정치, 또는 시민교육과과 등을 통해 통합교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사회과교과목의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EC, 2012).

국가별로 살펴보면 불가리와 라비타의 경우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에 포함되기도 하고 체코는 윤리교과안에, 리투아니아는 자연과학 교과목에서, 폴란드는 사회과 교과뿐만 아니라 수학교과에서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통합교과를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슬로바키아는 유일하게 독립교과목으로 정해놓았다. 핀란드도 최근 독립교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EC, 2012).

(2) 중등학교

중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초등학교보다 훨씬 많은 국가에서 필수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고(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 이 역시 주로 통합교육과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EC, 2012).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의 경우는 필수교육과정이며 독립교과의 형태이다. 불가리아는 과학영역에서 선택과목이며, 덴마크와 스페인은 선택교과목이다. 초등학교와 구별되는 특징은 직업교육이나 경제교육교과랑 통합교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필수교과인 국가는 절반에 해당된다(EC, 2012). 그러나 여전히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주로 사회과 교과목에서 이루어진다. 라티비아와 스웨덴의 경우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일부가 예술과 음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수학이나 과학, ICT시간을 통하여 다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교과목과의 연계 안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EC, 2012).

(3) 상급중등학교

유럽연합 회원국 모든 국가의 상급중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혹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대신 비슷한 개념의 다른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한 개의 국가도 빠짐없이 기업가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EC, 2012).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가장 흔한 형태이고(3분의 2에 해당), 특이한 것은 독일의

경우 상급중등학교에 올라오면 선택 교과목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국가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3분의 2가량의 국가들은 선택과목으로 통합교과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노르웨이 등). 스웨덴은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2011년 가을학기부터 경제과목에서 분리하여 독립교과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가르치고 있다(EC, 2012).

주로 경제, 직업교육과 통합교과로 이루어지며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단 사회과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사회과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필수교과목이 된다. 일반 중등학교와 비교해보면 상급중등학교에서는 그다지 유사과목으로 간주되지 않는 수학이나 과학, ITC교과목과 통합교과로 가르치고 있는 국가가 줄어들었다(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이러한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도 모교과목의 특성상 필수 교과목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불어교과 시간에, 라티비아는 윤리시간에 각각 선택과목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EC, 2012). 아래의 표는 국가별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유형을 통합교과와 독립교과, 필수 여부, 학교 급별로 나눈 것이다.

<표 5> 초중등학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유형

	통 합 교 과			독 립 교 과		
	초등	중등	상급중등학교	초등	중등	상급중등학교
필수 교과	영국 체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덴마크 라티비아 슬로바키아 영국(웨일즈, 북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스웨덴

	통 합 교 과			독 립 교 과		
	초등	중등	상급중등학교	초등	중등	상급중등학교
선택 교과		벨기에(fr)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몰타 영국(잉글랜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라티비아 독일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터키 노르웨이		벨기에(nl) 덴마크 스페인	

3)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세부 목표

유럽위원회는 유럽 각국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세부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교육목표는 2006년 Heinonen과 Poikkijoki⁵⁾의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태도와 지식, 기술의 영역으로 나눠 각각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EC, 2012).

<표 6>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세부 목표⁶⁾

영역	필요한 내용
태도	① 자기인식과 자신감 :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태도. 자신의 능력을 찾고 창의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기인식과 자신감은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에 해당하기도 함. ② 주도권, 위험 감수,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 기업가정신에 기본적인 태도이면서 기업가로서의 자신을 표현하는 특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음.

5) 이 모델은 유럽위원회가 아래의 세 가지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임.

Heinonen & Ooikkijoki(2006). An entrepreneurial-directed approach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mission impossible?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5(1).

European Commission(2007). Key competences for lifelong learning. European Commission. NESTA(2009).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6) European Commission(2012:19).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에서 연구자가 편집하여 인용

영역	필요한 내용
지식	① 직업세계와 직업의 기회 : 기업가정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직업을 갖고자 하는 모든사람이 가져야할 기본 지식에 해당함. 그러나 기업가에게 필요한 지식이란 다양한 종류의 일과, 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런 지식을 가질 때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준비할 수 있음. ② 경제문해 &재정문해 :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기본 경제와 재정에 관한 지식
기술	① 의사소통, 프리젠테이션, 기획, 팀웍 :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 기술 ②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함 :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술

위의 표에서 제시된 기업가정신 함양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지만, 국가별로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위의 요소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은 위의 요소들이 아동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EC, 2012). 특히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통합교과를 통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이 효과성 평가나 교육 내용에 대한 개발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이상의 가이드라인의 활용은 교육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위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국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태도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중등학교는 지식과 태도, 기술 모두를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EC, 2012).

4.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 에라스무스

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소개 및 목적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 이하 에라스무스)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젝트로, 작은 규모 혹은 중간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의 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EC, 2014). 이를 통해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게 하고 국경을 넘어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서 이 프로젝트가 고안되었고,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는 소상공인 법(Small Business Act)의 적용을 받는다(EC, 2014). 유럽연합은 에라스무스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업과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의 경제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인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의 일반적인 목적은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내 다른 나라에서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EC, 2014).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On-the-job-training(OTJ), 즉 현장실무교육의 활성화이다. 유럽회원 국가 중 어느 곳에서라도 중·소규모의 기업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기업운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실무교육을 권장하고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EC, 2014). 두 번째 목적은 기업을 시작하고자하는 사람들간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으로 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나 사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물과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유럽연합 회원국내에서 시장진입의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적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마지막 목적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에 두었다(EC,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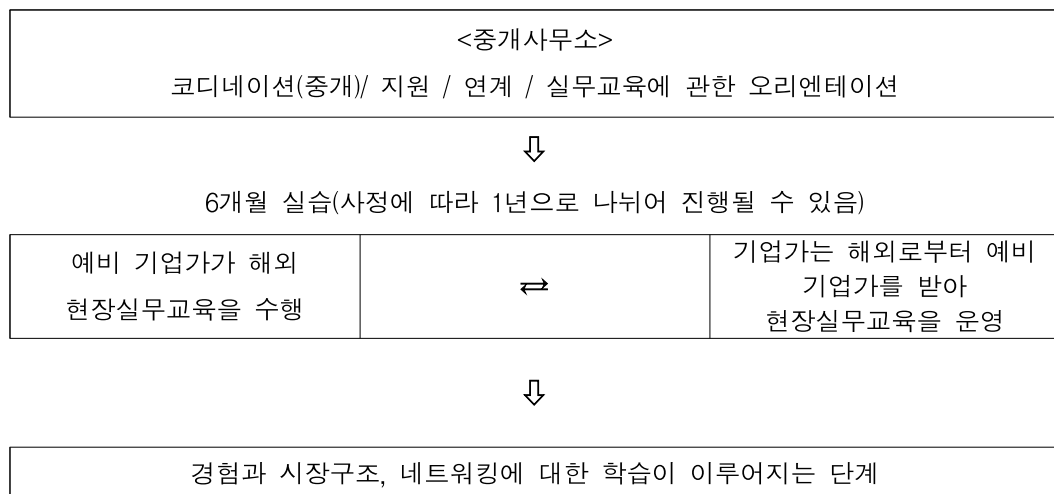
2) 운영 체계

(1) 기본 요소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기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현장실무경험의 형태로 고용하려는 기존 기업가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해, 기업을 하려는 사람(new entrepreneurs, 이하 NE) 과, 기존 기업가들(host entrepreneurs, 이하 HE)을 연계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EC, 2014). 구체적으로는

- 자격을 갖춘 NE와 적절한 HE의 연계
 - 개별 국가 안에 설치된 중개사무소(intermediary organisations, 이하 IOs)들을 통한 NE와 HE 간의 연락체계 구성
 - 에라스무스 내 청년 기업가 지원 사무소에 의한 IOs 의 활동 코디네이션
 - 해외 체류를 위한 조건들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도출 ; 신청한 NE와 선정된 HE, 그리고 중개사무소 간의 이해관계 정리(청년 기업가의 역할과 책임, 현장실무교육 계획 및 업무, 책임분담, 재정상태, 법적용 등에 관한 문제 등)
 - 해외 체류기간에 관한 규정 ; 총 1개월에서 6개월의 체류가 가능하고 최소 1주 단위로 구성되며, 12개월로 나누어 체류할 수 있음(최장 6개월만의 연속체류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연속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눠서 체류할 수 있음)
 - 중개사무소의 프로그램 평가와 유럽연합 사무국에 활동 보고 등
- 이 있다(EC, 2014:6).

아래의 그래프는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과 운영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2] 예비 창업가 현장실무교육 개요⁷⁾

7) European Commission(2014:7). The European Entrepreneur Exchange Programme,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Support Office에서 연구자가 편집하여 인용함.

(2) 프로그램 운영 단계

에라스무스 예비 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단계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EC, 2014).

<표 7> 예비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계

단 계		내 용
1 단계	지원 단계	온라인 등록을 통해 NE와 HE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계로 중개 사무소가 서류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통보하는 단계.
2 단계	연계 단계	서류심사에 통과한 NE와 HE가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함. 이때 NE 나 HE는 중개사무소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각각 서로가 원하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으며, 중개사무소에 이를 신청할 수 있음.
3 단계	계약 체결과 준비단계	- 중개사무소, NE, HE 모두가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동의서 작성, 실습 계획과 과제, 책임, 재정 상황, 법적인 영향력, 등에 대한 동의서 및 계획서 작성 단계. - 유럽연합 사무국은 연계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는 단계임. - NE 와 HE는 중개사무소가 주관하는 사전 교육에 참가함.
4 단계	실행 단계	- NE와 HE가 현장실무교육을 시작하고 종료하고 기간별로 활동을 보고하는 단계 - 이 단계에서 중개사무소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책임이 있음.

3) 프로그램의 실행

(1) 참가자 지원

예비 기업가에게 현장실무교육을 제공하는 HE에게는 중개사무소가 NE와 HE 상호간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 기업가인 HE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참가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업규모에 관한 안내는 에라스무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기업규모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EC, 2014), 관련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ec.europa.eu/enterprise/enterprise_policy/sme_definition/index_en.htm

현장실습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선임 HE 보좌
- 시장조사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 프로젝트 개발 및 R & D
-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조사연구
- SME 재정에 대한 이해
- HE의 마케팅, 세일즈 등에 대한 이해
- 위에서 언급된 영역 중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집중(EC, 2014:9)

(2) 참가대상

① 예비 기업가(NE)

예비 기업가란 기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시작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사업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장실무교육을 받게 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기여할 자세를 지녀야 한다(EC, 2014). 현장실무교육을 통해 자신이 향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노하우등을 습득하는데 있어서도 개방성과 융통성을 가 가진 사람이 참가자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예비창업가는 관련 직업분야에서의 경력이 증명되어야 하며, 관련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졸업장, 자격증, 학위 등)(EC, 2014). 또 지원 단계에서 예비 기업가는 자신이 운영하게 될 기업에 대한 중장기 미래발전계획, 열정, 창의성과 도전정신 같은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이외에 소요될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펀드레이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EC, 2014).

② 기존 기업가(HE)

예비 기업가에게 현장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기존의 기업가의 경우, 에라스무스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업에 있어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예비 기업가를 고용하여 현장실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오게 될 예비 기업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업 노하우와 기술, 지식 등을 전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추후에 귀국하여 사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EC, 2014). 또 예비 기업가에게 필요한 지식 습득이나 기술 획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보다 많은 기업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기도 한다. 기업가들에게는 다른 국가의 젊은 인재를 일정기간 고용함으로써 다른 국가에 대한 이해와 사업확장, 인적네트워크들을 구축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① 중개사무소(Intermediary Organisation ; IOs)

중개사무소는 공식적으로 NE와 HE를 연계하기 위해 지정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 사무소는 자국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유럽연합 수준에서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며 유럽연합 내 여러 조직은 물론 회원국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현장실무교육의 참가자 접수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전 단계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고 NE와 HE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국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중개사무소가 지정되어 있다(EC, 2014).

② 에라스무스의 청년 기업가 지원 사무소(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Support Office ; SO)

유럽연합 차원에서 창업가를 위한 현장실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중개사무소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개사무소가 개별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라면, 이 사무소는 모든 국가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EC, 2014).

(4) 지원

예비 창업가과 기존 기업가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며 자국이나, 혹시 자국에 중개사무소가 없는 경우, 지역별로 할당된 중개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가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중개사무소와 연락하며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주소는 www.erasmus-entrepreneurs.eu 이고, 신청서는 각각의 중개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EC, 2014).

(5) 필요한 정보와 선발절차

중개사무소가 엄정한 절차를 거쳐 NE와 HE를 선발하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최종 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 NE와 HE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발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저장되어 있으며 원하는 NE와 HE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EC, 2014).

(6) 참가자의 의무와 책임

① 예비 기업가(NE)

현장실무교육에 참가하는 예비교육가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EC, 2014).

- 미래에 본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년 창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와 NE, HE, 중개사무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함
- 서로 협의된 시간 내에 중개사무소가 지시하는 업무, 책임, 재정 조건, 법률 문제와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할 것
- 새로운 기업가로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에라스무스의 대사(Ambassador)로의 역할을 수행함(EC, 2014:12)

이외에도 NE는 해외에서 현장실무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중개사무소가 요구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NE의 계획서 수행정도와 성과물 정도에 따라 지원되며 중개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NE는 중개사무소는 물론 HE와의 협력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 수립된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EC, 2014).

② 기존 기업가(HE)

HE는 NE와 중개사무소와 함께 청년 기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수립하여야 하며 NE가 기업가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추후에도 에라스무스 정신에 반하지 않는 한 NE와 HE는 어떤 식으로든 기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교류와 관계를 형성할 수 도 있다(EC, 2014).

③ 중개사무소(Intermediary Organisations; IOs)

중개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HE와 NE를 연계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현장실무교육의 질 모니터링,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평가하는 것까지 모두 중개사무소의 역할이다. HE와 NE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각각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EC, 2014).

• NE에 관한 역할과 책임

- 관심있는 지원자에게 정보제공과 안내
- 자격증(졸업장), 기업에 대한 열정과 사업계획, 언어구사능력에 따라 지원자 선발
- 개별 NE를 위한 현장실습지역 발굴
- 해외의 현장으로 출발 전 실무 오리엔테이션 제공
- 현장실무교육중 NE에게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 자국으로 들어오는 NE에게는 지역 연락 사무소의 역할을 하며 체류기간동안 보건, 보험, 주택, 교통, 자국의 법규에 대한 안내 등을 지원함
- 현장실무교육이 끝난 후 보고서를 수합
- 현장실무교육에 참가중인 NE가 실습기간중에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EC, 2014:12)

• HE에 관한 역할과 책임

- HE, 즉 NE의 현장실습을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HE에게 정보제공과 안내를 해주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조직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함
- HE를 연계함
- 이런 현장실무교육에 적합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NE 발굴
- 현장실무교육이 종료된 이후 보고서 수합

- NE를 받아줄 수 있는 검증된 HE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EC, 2014:12)

④ 에라스무스의 청년기업가 프로그램 지원사무소

전술한 중개사무소(IO)는 에라스무스 지원사무소와 현장실무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것들에 대한 지원과 운영을 하게 된다. 에라스무스 사무소는 청년실무교육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며, 중개사무소가 에라스무스의 청년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이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프로그램 질 관리, 중개사무소들간의 네트워킹 구축과 이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EC, 2014).

⑤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책임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과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 NE와 HE의 프로그램 참가를 증명해주는 일, 평가와 이미 유럽위원회 안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결하는 것,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등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EC, 2014).

(7) 필요한 동의절차

NE와 HE, 그리고 중개사무소 사이에서 계약적 관계가 지속되기 위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에라스무의 청년기업가 프로그램은 4개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EC, 2014). 즉 예비 기업가 또는 신진 기업가(NE), 기존의 기업가로서 예비 기업가를 교육시키는 HE,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양쪽의 중개사무소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며, 이 파트너십에 의해 원칙과 목표, 책임이 정해지게 된다. 두 번째의 조건은 NE와 중개사무소간의 계약관계인데 중개사무소는 NE가 속한 국가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때 중개사무소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프로그램 일정, 사업계획, 관련한 학습지원, 활동, 프로그램 결과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EC, 2014).

이러한 계약관계에 대해 NE가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는 자국에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참가를 위해 출국하는 NE와, 타국에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참가를 위해 자국으로 입국하는 NE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있으며, 출국하는 NE를 위탁하는 HE, 또, 자국내 HE와의 관계에 있어도 모두 관여하는 주체가 된다(EC, 2014).

(8) 행정지원

에라스무스 청년기업가 프로그램 공식 웹사이트는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을 DFFU주기도 한다. 중개사무소는 국가나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으며, NE와 HE 양쪽의 입장과 요구를 고려하여 최대한 서로의 필요가 맞는 상대방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타국의 NE가 자국에 입국할 경우 숙소와 교통수단, 보험등에 관한 지원도 중개사무소의 역할이다(EC, 2014). 에라스무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NE, HE로부터 질문을 수집하여 공통의 질의응답의 경우는 출판하여 배포하기도 하며, 웹사이트에서 문제점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하고 있다(EC, 2014).

(9) 재정지원

NE에 대한 재정지원은 처음 프로그램을 지원한 중개사무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여행경비와 체류기간동안 숙소를 포함한 주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지원금은 NE와 중개사무소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며,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국가별로 최대 지원금의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물가와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책정되는데 알바니아의 경우 최소 액수로 매월 530유로(한화 약 73만 5천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EC, 2014). 가장 지원금의 액수가 높은 곳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로 1100유로가 지급되며, 이어 영국과 아일랜드는 1000유로, 구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560에서 700유로 정도로 국가별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정해져있다. 중개사무소의 책임 하에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NE는 나중에 지원금 사용내역서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EC, 2014). 현장의 사정에 따라 혹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으며, 만약 초과했을 때는 중개사무소가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EC, 2014).

(10) 결과보고서 제출내용

중개사무소는 NE와 HE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우선 중개사무소는 NE에게 최종보고서에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NE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 활동 내용, 향후 사업에 활용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HE가 NE를 통해 얻은 성과물을 보고하고, 다음 프로그램에 개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개사무소의 역할이다(EC, 2014).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수합된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긴 하지만, 사생활보호와 기업정보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보고서의 공유로 인해, 더 많은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E와 HE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중개사무소도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문제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EC, 2014).

(11)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들과, 참가자, 중개사무소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EC, 2014). 이러한 평가를 통해 좋은 사례가 소개됨으로써, 처음 참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의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선과 개발에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5. 결 론

유럽연합에서 주도하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관한 정책과 교육내용들을 고찰하고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개인의 진로나 경제역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혹은 더 넓게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실업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제개발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국가경제개발정책의 주요 하위요소로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의 논의는 단지 개인의 진로와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확대하여, 국가정책적인 논의 수준으로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일국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 기업가가 원하면, 전 유럽 어디에서라도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무교육을 인턴십처럼 활용하고 있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청소년이나 청년에게만 그 수혜가 돌아가지 않고, 기업가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즉, 기업이 현장실습생을 활용하여 자기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실습생활용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실습생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 인력까지(중개사무소) 배치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즉,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업의 대상과 지역을 전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해 국가 간 교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럽 어느 지역에서도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할 때는, 기업방문이나 현장실습의 단순한 차원에서 벗어나, 그 무대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체계구축과 전담사무국이나 기구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유럽과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 필요한 본인의 창의성, 진취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협동심등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이고, 이러한 핵심역량이 사회진출의 성공적인 필수 요소가 된다면, 더 이상 지나친 입시와 학벌위주의 가치관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의 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 위기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집중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함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교교육이나, 혹은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이 창업교육이라는 극히 지엽적인 사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삶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리더십함양에 관점을 맞추어야 하며, 직업교육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은,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건 운영하지 않건, 개인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며, 그 무대가 세계로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아직 논의 초기에 머물러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논의, 그리고 소개와 적용이 필요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기부터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적 지원체계 수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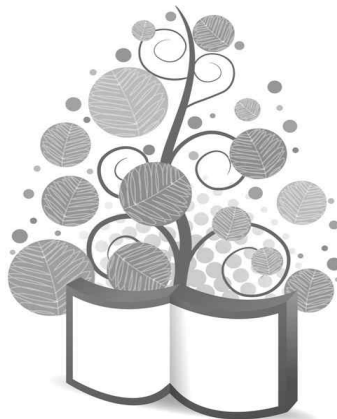
【 참고 문헌 】

- 윤선구(200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사회와 철학. (5). 155-188.
-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COM(2008) 394 of 25 June 2008, pp.5-6.
- European Commission(2006).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Fostering Entrepreneurial Mindset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Final Proceeding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1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National Strategies, Curricula and Learning Outcomes. EACEA; Edurydice,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2014). The European Entrepreneur Exchange Programme.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Support Office.
- European Union(2013).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Guide for Educators.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conomy Unit 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and Industry. European Commission
- Karen A. Murdock (2012) Entrepreneurship policy: Trade-offs and impact in the EU,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4:9-10, 879-893.

발 표 3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모형

- ▶ 발표자 : 남 부 현 (선문대학교 교수)
- ▶ 토론자 : 김주희박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모형

남 부 현 (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기업가정신 교육 필요성과 한국의 실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우리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앞선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한국의 성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와 산업의 발전은 대부분 2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지식·정보화 시대 그리고 글로벌 경제·사회체제에 맞는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응책은 부족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서비스와 첨단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또한 기존의 글로벌 시장 경쟁체제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에 국제사회 내 한 국가의 경쟁력 확보는 지식과 정보를 자원으로 한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산업발달에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자원이 된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움직임은 유럽연합이 지난 2006년 오슬로 어젠다(Oslo Agenda)를 발표하고 전 유럽 국가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의 의무화를 제안한 것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09)에서 모든 국가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정차근, 2013; 창조경제연구회, 2013). 선진 국가들이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강조되고 있음은 우리 국가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과거 70년대의 교육체제와 과정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교육현장, 대학입시가 최고의 교육목표로 변질된 학교교육,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의 인재양성을 과거 차별적 직업분류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인식 틀에 묶어 놓는 사회·문화적 환경 등이 현재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방해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에 의존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으로 길러지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역량은 부족하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위해 다시 사교육에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들이 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스펙과 성적관리에 연연해 실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못하고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잃어버렸다(국무총리실, 2013; 정차근, 2013 차민석 외, 2012). 시대적 그리고 세계적인 변화추세를 읽지 못하는 학부모와 기성세대 그리고 학교교육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정해진 진로를 선택하고 안정된 직장만을 찾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나 혁신을 꺼리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

한국의 15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실업률은 2014년 3월 현재 9.9%로 전체 실업률(3.9%)의 2배 이상을 차지하며, 2013년(7.5%)보다 2% 이상 상승하였다(통계청 나라지표, 2014, 03). 또한 이들의 고용률은 2013년 11월 40.0%에 그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3, 12, 11). 이처럼 청년층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예측가능하다(차민석 외, 2012; 허석재, 2009; 통계청, 2012).

이렇게 글로벌 경제·사회체제가 변화하는 상황에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실업, 고용 등의 문제들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한 지난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청소년들의 교육에 변화를 시작하였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진로교육, 창업교육, 비즈쿨(BizCool)¹⁾ 프로그램, 창업센터 운영, 그리고 창업동아리 활동 등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적 지원과 정책을 펴며 정부의 적극적인 변화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정부 또한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연계하여 청년들의 창업과 이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국무총리실, 2013. 07.16).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과 지원은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1) 비즈쿨(Bizcool)이란 선진국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한국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 청소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준말로 비즈니스로 세상을 배운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출처: <http://bizcool.go.kr>).

청년창업 지원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이며 유사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추진도 문제가 되고 있다(정차근, 2013; 차민석 외, 2012).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를 조율하는 기관이 그 역할과 기능이 미흡한 것이며 미시적 관점에서는 세부사업과 프로그램 간에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연계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관리 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그동안 학교교육과 동떨어진 창업교육 그리고 현실감이 떨어진 정부의 정책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글로벌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을 학교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긍정적이어서 청소년들이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배종태 외, 2009). 이에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도 변화하는 세계를 무대로 도전과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기업가적인 신념, 가치, 태도, 행위 등을 배우도록 안내하고 교육함이 마땅하다. 즉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보다 실질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서 이들이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데 활용·적용·응용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단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이상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로·창업교육과도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진로·창업교육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환경개선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개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개선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차민석 외 2012; 창조경제연구회, 2013;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이에 본고는 첫째,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주요 개념과 핵심요소를 정리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및 주요방법 및 전략을 간략히 제안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 학교, 기업, 기관/단체 등이 연계·협력할 수 있는 총체적인 참여형 교육 시스템과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 및 핵심요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영학의 주요 핵심영역으로 자리 잡으며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정신은 창업자정신이나 벤처정신, 창업활동 등으로도 불리기도 한다(정차근, 2013; 한국의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Schumpeter(1936)의 연구를 시작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을 혁신의 창조적 결합이며 그 결합에 따른 실행으로 보고 있다. 초기 연구는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기능과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가정신을 보았고 그 후에는 개인별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여 성취욕구, 모험성향, 내적 통제, 위험감수성향, 가정환경 등에 관련하여 기업가 정신을 정리하였다(배종태 외, 2009; 한국의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배종태와 차민석(2009)는 이 기업가정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한다. 이로 인해 기업가정신은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반영하며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실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1) 기업가는 누구인가?

기업가의 어원인 entrepreneur는 불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수행하다, 시도하다, 모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Lewins, 1983), 200년 전 중개상(between-taker)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Martinelli(1994)은 기업가는 기업과 시장 간의 중간자 내지는 새로운 기회에 민감한 ‘간격을 메우는 자(gap filler)’로 정의한다(배종태 외, 2009, p.7 재인용). 이러한 기업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Cantillon(1755)이다. 그는 확실한 가격에 상품이나 원료를 사서 불확실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 농부, 장인 등을 관찰한 후, 이들 기업가를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프랑스의 경제학자 Say(1803)는 Cantillon의 정의에 생산기능을 추가하여 기업가를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사람’으로 보았다. 조직적 관점에서 Mintzberg(1989)는 기업가를 조직의 수장으로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리드하고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이윤준 외, 2012, 재인용; 한국의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재인용).

한국에서 기업가는 기업을 지배·운영하는 경영자를 의미하며, 스스로 기업에 출자하여 소유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자이다(송영수, 2010). 이에 남영호(1995)는 기업가의 개념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업을 창조하고 과감한 경영기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강인한 의지력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는 기업가의 개념은 경영자의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가와 경영자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배종태 외, 2009 재인용). 배종태 등은 이러한 기업가의 개념을 7가지 관점에서 그 역할을 설명한다: 조직자(organizer), 혁신자(innovator), 전략가(strategist), 지도자(leader), 중개자(linker), 투자자(investor), 설계자(architect)

- 조직자: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신규 사업부서를 만드는 역할
 - 혁신자: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창조적 파괴’를 수행하는 역할
 - 전략가: 기존시장에서 채우거나 도달하지 못한 지점에 도달하는 역할
 - 지도자: 새로운 비전제시와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
 - 중개자: 두 가지 이상의 사회적 그룹이나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
 - 투자자 : 위험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보상적 수익을 추구하는 역할
 - 설계자: 기술, 시장, 조직,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하는 역할
- 이처럼 기업가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며 세상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며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기업가정신 개념 및 핵심요소

기업가정신은 지난 30여 년 동안 다양한 주제로 다루어지며 경제학, 경영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가정신에 대해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Morris, Lewis, 그리고 Sexton(1994)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다음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배종태 외, 2009, 재인용).

이를 살펴보면 시작, 발견, 창의, 혁신, 새로운 사업, 기회추구, 모험심, 위험관리, 이윤추구, 자원의 배합, 가치창조 등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표 1> 기업가정신에 대한 주요용어

용 어	빈 도
1. 시작, 발견, 창 의	41
2. 새로운 사업, 새로운 벤처	40
3. 혁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39
4. 기회의 추구	31
5. 모험성, 위험관리, 불확실성	25
6. 이윤추구, 개인적 이득	25
7. 새로운 자원의 결합, 상생의 의미	22
8. 경영	22
9. 자원배열	18
10. 가치창조	13
11. 성장추구	12
12. 일처리 활동	12
13. 사업유지	12
14. 주도성, 일의 수행, 진취성	12
15. 변화창조	9
16. 오너쉽	9
17. 책임, 권한이양	8
18. 전략공식화	6

대표적으로 Schumpeter(1934)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인 정리를 한 학자로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앞장서는 기업가의 노력이나 의욕을 기업가정신이라 정의한다. 또한 Druker(1985)는 기업가정신을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이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정신은 기업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기혁신의 바탕이라고 강조하였다. Stevenson과 Jarillo(1990)는 기업가정신을 “개인 자신(즉 개별 창업인이나 조직 내부에서 개인들)이 현재 통제 가능한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재인용). 이러한 기업가정신에 대해 Timmons(1990)는 기회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자 접근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의 창조적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주요 개념을 열정, 헌신,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 창조적 행동, 가치추구, 기회추구로 정리하였다. 또한 Timmons(1994)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로 ① 기업가(entrepreneur: E), ② 기회(opportunity: O), ③ 자원(resources: R)을 제시하였다.(김진수 외, 2009, 재인용).

이와함께 조직차원의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의 범위를 조직차원에서 혁신성(innovation), 진취성(proactiveness), 그리고 위험 감수성(risk-taking)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업이 취해야 하는 기업가정신의 특성을 설명한다: 첫째, 혁신성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어 실험적 정신, 참신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도입하는 기업의 경향을 의미한다. 둘째, 위험감수성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위험 선호적 의사결정을 도입하는 기업의 경향을 의미한다. 셋째, 진취성은 미래의 문제, 필요, 변화에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포함하며 새로운 전략적 의사결정에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들의 경향을 의미한다(배종태, 차민석 외, 2009: 재인용). 따라서 기업가 정신은 기업성장을 위해 혁신적으로 행동하는 기업가 개인은 물론 조직전체가 기업성장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조직전체의 기업가정신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경호(2004)는 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이념이며 경영철학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비교분석 한 김진수 등(2009)은 개인차원의 기업가정신(Individual Entrepreneurship)의 핵심개념으로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자기통제능력(locus of control), 위험 감수성향(risk-taking), 창의력(creativity), 그리고 기업가적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차원의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은 기업 안에서의 진취성(proactiveness), 혁신성(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risk taking), 경쟁적 공격성(competitive aggressiveness)등으로 정리하였다. 위와 같은 기업가정신을 배종태와 차민석(2009)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 국부 창출의 국민 의식적 함양의 시발점이다; 둘째, 고용을 진작시켜 소비, 투자, 수출 등 산업발전의 효과를 높인다; 셋째, 경제활동 인구전반의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효과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개인과 조직이 내·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념, 가치, 태도, 행위 등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위의 제시된 기업가정신 개념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그 주요개념을 창의력, 혁신/모험심/도전정신, 열정, 가치창조, 자기통제능력, 자기효능감, 자원과 기회의 획득 및 활용,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위험 감수성 등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그 주요 핵심요소는 학생자신, 지식, 기술, 인·물적 자원, 기회 등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전체 차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청소년들 모두가 학습하고 배워서 활용해야 할 주요 신념, 가치, 태도,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 등이 준비되어 지속적이며 단계적으로 제공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이 바람직하다.

3.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교육 현황과 방안

기업가정신 교육은 한국에서 1970년대 후반 대학에서 ‘중소기업 경영론’ 강좌를 제공하며 시작되었고 1980년대 초부터는 창업교육을 강조하고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1997년 12월 IMF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청은 2003년 벤처창업 전문과정(Entrepreneurship Intensive Program: EIP)을 호서대학교(수도권) 및 진주산업대학교(비수도권)에 개설하여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였고, 2004년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 창업대학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업가정신 교육은 160여개 대학들에서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벤처)창업론’, ‘창업과 경영’ 등과 같은 교양강좌 선택 수준에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 과정과 일반인 대상의 창업교육 과정이 명확한 구분 없이 실제 창업을 위한 기능중심의 단순교육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윤준 외, 2012; 정차근, 2013; 한문성 외,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은 2001년 12월부터 비즈쿨(BizCool)이라는 교육 길라잡이를 개발하고 2012년부터 학교교육 과정에 비즈니스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터이다. 이는 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험적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을 하고 청소년들이 기업가적인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기존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강조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적용하고자 마이스터(Master)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정부는 청소년의 직업관련 및 창업교육 5개년 계획(중소기업청, 2009)을 수립하고 청소년들의 창업활동을 강조하며 이들이 기술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적성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윤준 외, 2012; 허석재, 2009; 천수경, 정화영, 2009). 또한 2013년 5월부터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²⁾를 도입하여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고 적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13).

이러한 창업, 진로교육 정책들은 정부가 시대적 변화와 세계경제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교육정책들이 자리잡기에는 사회·문화적, 환경적,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학생들의 대학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기술습득이나 창업보다는 대학진학에 목표를 둔 학생과 학부모, 정부 부처 간 연계되지 않은 정책들과 중복지원, 관주도의 지원체계, 진로나 창업교육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진로나 창업교육 제공과 지원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도 쇠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윤준 외, 2012; 차민석 외, 20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따라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우리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지는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정신적 측면이 강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현재의 삶의 자세는 물론 미래 개인이 직업을 갖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치, 태도, 자세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이론을 앞세우는 교육이나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지양하고 학교급과 학년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의 차별화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에 진로 및 창업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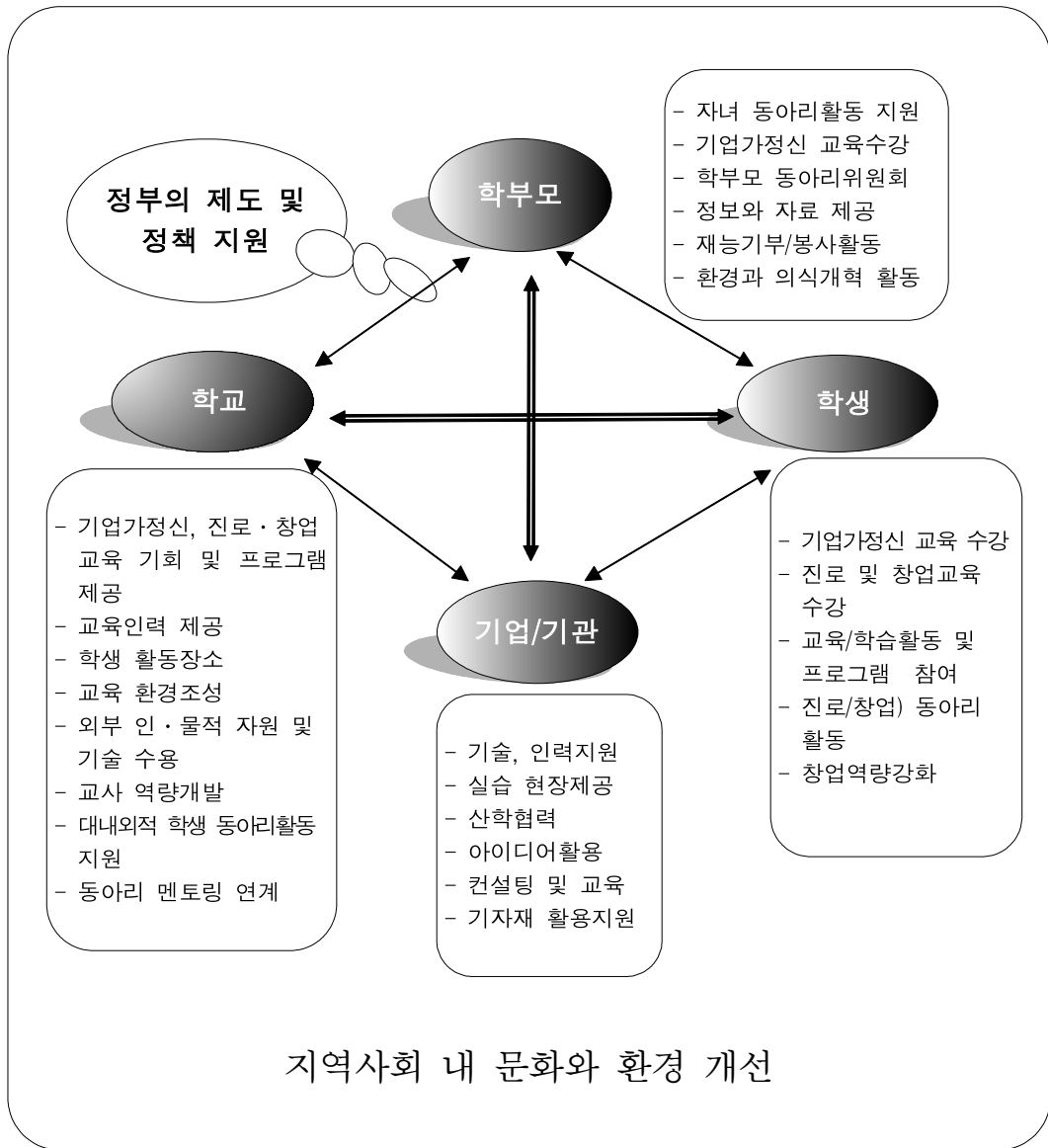
2)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2013. 05. 29).

육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개발과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하나의 기업가정신 발현의 공동체장으로서 학교, 학생, 학부모(일반인), 기업/기관 및 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학습 그리고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문화적, 제도적, 환경적 토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모형

기업가정신 교육은 청소년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정책에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내 모두의 참여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참여형 교육모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개별 이익집단(학교, 학부모, 학생, 기업과 단체 등)이 다음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토대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내부적으로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그 방법 및 전략을 제안하며,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토대 구축을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대내외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시스템

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단계적 교육과정 및 활동/프로그램 영역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학년과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과 실제적인 학습과 활동이 제공되고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미래 자신의 진로개척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운영 방향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고 이를 위해 공통 및 차별화된 기업가정신 핵심 교육개념과 주제를 발췌하여 교수·학습 활동 및 프로그램 등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표 2>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운영 방향

교육 영역	교육 목표	학교급					핵심 교육주제 및 개념
기업가정신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공통: 학교급별 특별:
							
진로 및 창업역량 강화				중등	고등	대학	공통: 학교급별 특별:
							
인턴십 및 창업기회 제공					고등	대학/대학원 ~	공통: 학교급별 특별: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과 그 방법 및 전략등이 제안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기업가정신 교육이 종횡적으로 연계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과 학년별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활동과 프로그램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예술·체능,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경제·금융·경영, 그리고 기술·산업(공업/농업/상업)영역 등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관심영역을 선택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하여 교실 안과 밖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표 3> 단계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정 및 활동/프로그램 영역

단계	학년별 구분	활동 및 프로그램 영역
1 단계	유치원, 어린이집 6~7세 - 초등 저학년(1~3학년)	• 예체능 영역
2 단계	초등 고학년(4~6학년) - 중등 2학년	• 인문·사회과학 영역
3 단계	중등 3학년 - 고등 2학년	• 자연과학 영역
4 단계	고등 3학년 - 대학교 2학년	• 경제·금융·경영
5 단계	대학교 3~4학년 - 대학원 이상	• 기술·산업(공업/농업/상업)영역

따라서 청소년 체험 및 실습 활동은 지역사회 내 각 영역별로 전문 기업과 기관 및 단체들을 연계하여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전문 담당교사나 멘토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개인별 또는 소속 동아리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그 활동의 영역과 범위도 확장하며 차후 평가와 인증을 받고 대학입시, 취업, 또는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단계로 학년과 학교급에 기초한 주요 교육내용 및 그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면 <표 4>과 같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타교과목과 연계할 뿐만 아니라 단독 교과로도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개인별, 동아리별로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표 4> 단계별 기업가정신 교육 주요 교육내용과 전략

학년 기준/ 단계	주요 교육내용	교육 전략
5. 대학교 3, 4학년 - 대학원 이상	• 창업활동 • 창업을 위한 경영 • 시장 및 사업현장 탐구 • 취업준비 프로그램	• 대학 또는 기관의 연구소와 팀워크 •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 • 전문가 멘토링제 • 중고등 동아리활동 지원
4. 고등학교 3학년 - 대학 2학년	• 동아리활동(창업 준비 및 활동 전개) • 인턴십/현장 실습과정 • 법적 제도적 창업실제 • 조직, 마케팅, 금융, 회계 등 교육 2 • 창업설계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전문 취업교육	• 창업 아이템 및 콘텐츠 개발 콘테스트 (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 국내외 창업 동아리 연계 • 글로벌 기업 인턴십 개척 •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인턴십 활동 • 지역 인·물적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멘토링제

학년 기준/ 단계	주요 교육내용	교육 전략
3. 중등 3학년 - 고등 2학년	- 기업가정신 실현 실습 - 진로교육 설계 - 아이디어 발굴 - 조직, 마케팅, 금융, 회계 등 교육 1 - 창업설계 및 절차 - 그룹별 특성화된 동아리활동 전개	- 학교 및 지역사회 동아리 활동 전개 -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실습기회 제공 - 기업가정신 강화 - 개인별, 팀별 진로설계 활성화 - 학부모 및 전문가 동아리 멘토링제 도입
2. 초등 고학년 - 중등 1학년	- 기업가정신 핵심내용 교육 - 진로교육 인식 및 탐색 - 다양한 동아리활동 전개 및 프로그램 참여 - 경제 및 소비자교육 2	- 학교단위 동아리 활동 전개 -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 학부모 기업가정신 교육 제공 - 학부모 전문가를 활용한 동아리활동 봉사
1. 유아 6,7세 - 초등 저학년	- 기업가정신 기초 및 일반내용 교육 - 경제 및 소비자교육 1	- 지역단위 경제 및 소비자교육 전개 - 기업가정신 교육(초급단계 내용) - 학부모교육 제공

이 교육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자, 다양한 영역의 벤처 사업가, 활동가, 프로그램 개발자, 그리고 기업가정신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일반 주요 교과목과의 통합적 교육과정 그리고 단독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을 학년과 학교급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대학교 단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강화 방안

대학 단계에서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전공영역을 학습하고 학내 연구소나 센터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학내 창업지원 시스템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전공과목이나 특수분양의 교육과정이 학생 동아리활동에 매치되도록 하며 담당 교수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가 그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동아리들이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 중 자발적인 창업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외적인 창업 경연대회나 아이디어 발굴 콘테스트에 참여할 경우 대학별 심사를 통해 대회 참가비나 준비비용을 제공하여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활동 등에서 두드러진 동아리는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의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체계적인 초기지원(예산, 홍보, 마케팅, 생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한다.

5. 참여형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 모형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아우르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은 총체적인 지역사회 참여형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참여 핵심주체들은 **시군 단위의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의 창업센터, 기업 및 기관, 학부모, 전문가협의체** 등이 바람직하다. 이 모형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기업가정신을 교과를 통해 학습하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초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할 학부모가 존재하며 학교라는 공적기관을 통해 기업/기관/단체와 전문가집단 등과의 연계와 접촉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 핵심주체들은 미래 인재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을 위한 일반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지역사회 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 창업센터, 기업과 기관, 전문가협의체 등이 제도적으로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참여형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개발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이 지역사회 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주체들이 다음에 제시된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1) 지역 교육지원청

지역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전문교육 행정기관이므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동아리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통해 교육적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구축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에 지역 교육지원청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교육 및 연수, 학부모교육, 지역사회 기관과 기업 등의 자원과 인력의 활용을 위한 노력에 대표성을 띄고 일선 학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기업가정신 교육 및 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예산지원과 평가를 위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전문 웹사이트를 만들고 전문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웹에는 교육 및 활동 전문가들이 등록하여 학교 동아리 등과 매치하여 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사나 강사 인력 풀을 준비하고 학교에서 교육과 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전문가를 파견해 줄 수도 있다.

2) 학부모동아리위원회

학부모는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해 소통하며 협력하는 최고의 중요한 자원이다. 이에 학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시대적 변화와 기업가정신 및 진로·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이수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가칭 ‘학부모동아리위원회’를 구축함이 요구된다. 학교를 단위로 구성된 학부모동아리위원회는 위에 제시된 5개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 영역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또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특정영역에 재능있는 전문가 학부모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차후 인턴쉽 등의 활동현장을 직접 관장하며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 또한 학부모동아리위원회는 지역사회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과 문화 및 환경변화를 위한 주체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3) 학교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이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내용과 가치, 태도, 자세 등을 함양하는 활동은 초·중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습득하고 체험한 학습내용을 실제 활용하는 단계로 교육과정과 동아리 활동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동아리가 대학이나 기업을 통해 외부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는

반드시 전문 동아리 담당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하여 안내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학생 동아리 활동과 유사한 대학교의 대학생 동아리는 연계하여 동아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입시와 연계하여 대학의 전공과 유사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한 예비 입학생은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에서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학교는 연구소, 실험실, 전문연구자들을 초·중·고등학교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연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에는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서 동아리활동에 인적·물적자원을 지원받고 진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학습과 활동의 장을 경험하도록 함은 중요하다. 그리고 거점대학은 지역의 학생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역사회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이 네트워크하며 청소년들의 동아리와 창업활동 등을 격려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지역 내 대학들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을 위해 동아리 거점대학을 지정하고 시설이나 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따라서 특성화된 동아리별로 거점대학에서 교수와 연구진이 멘토로 활동하며 동아리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것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안정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는 전략이다. 동아리 거점대학과 전문 담당교수는 시간과 노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창업 센터

지역 창업센터는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들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며 지역 학생들의 모든 동아리 활동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동아리를 활동별로 분류하고 창업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창업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운영하여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도 담당하다. 그리고 정부 부처별 창업지원 제도와 정책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팸플릿을 만들고 홍보하여 학생 동아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업센터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동아리의 경우는 그 예산의 지출과 결의에 대한 관리와 감독기능도 센터가 수행해야 한다. 창업센터는 지역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창업을 위한 특별교육과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전문가집단, 학교, 기업/기관 등과 중개자 역할을 하며 모든 연계와 협력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지원과 활동이 되도록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학생들의 창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되어야 한다.

5) 기업 및 기관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 등은 학생들에게 활동과 실습의 현장, 전문인력 제공,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이나 기관이 지역교육지원청과 창업센터의 웹사이트에 자신들만의 특수 기술과 자원영역을 등록하고 학생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된 기업이나 기관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는다. 기업이나 기관의 활동은 반드시 학교, 지역 교육지원청, 창업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원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방학 중 기업에서 인턴쉽이나 창업,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실습, 인턴쉽, 또는 창업지원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그 노력에 대해 지역교육지원청과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어 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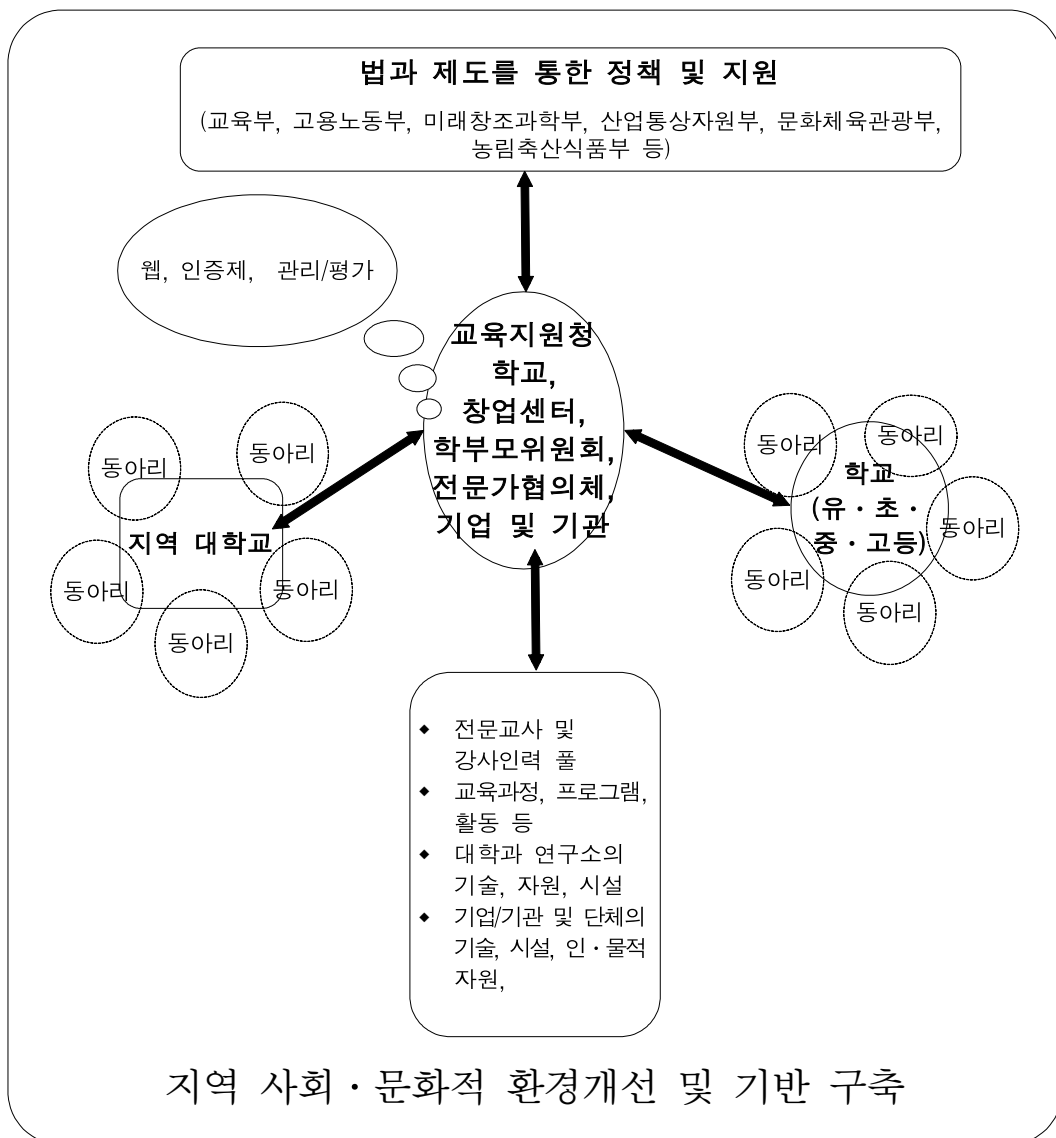
6) 전문가협의체

전문가협의체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강화 활동을 평가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정부,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기업/기관 등에 제공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인력풀 활용, 전문강사 활용, 예산 및 자금의 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하고 평가하며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의 전문가협의체는 기업, 기관, 학교 등에서 대표성을 띄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은 지역에 10명 내외의 추천된 전문가들로 선정한다. 이 협의체에는 활동과 회의 등에 일부 학생 동아리 대표들이 참석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 분기별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전반적인 기업가정신 교육과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평가 등을 종합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영역별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감독하고 총평가에 대해서 보고서와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추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전문가협의체에 선정된 전문가는 23년 단위로 새롭게 구성하며 지역사회 내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모든 교육, 지원과 활동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중립적인 대표집단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그 노고와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본연의 책임과 업무를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참여형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모형

6. 참여형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개발 모형 위한 정책제언

지식·정보화 시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사회·경제 체제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앞선 예측한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하며 세계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할 인재들을 양성해 오고 있다. 선진 국가들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잠재적인 공급자이며 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경제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부터 제공하며 개인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한다(이운석 외, 2012; 정차근, 2013; 한국상업교육학회,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국의 청소년들도 새롭게 교육받고 준비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으나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 시스템의 지역사회 내 토대구축,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과 진로·창업교육 등이 차세대 청소년들에게 조속히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더 이상 정부의 교육제도와 정책, 학교교육, 사회적 현실 분석,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 예측 등이 따로따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진로·창업 교육 등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여러 주체들이 수평적/수직적으로 동시에 상호 연계하고 협동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교육모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진로·창업교육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집단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며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각 부처의 정책과 행정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센터를 중앙단위에 신설한다. 그리고 지역의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계하여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수립과 지원 대책을 학교와 기업/기관 등에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배포하여 주요 계획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부처 간 연계하여 통합적인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가협의체를 활용하며 중앙에 협의체를 두고 그 역할을 조정한다.
- 중앙의 센터는 지역의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역의 센터는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의 창업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며 창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의 진로 및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련 부처가 교육과정 개편과 프로그램 및 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교과서, 가이드북, 활동지침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의 양성 및 현직교사의 연수가 필수적이다.
- 지역사회 내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진로교육을 위한 직업적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이들이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관리/평가 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개자로서 지역의 창업센터, 학교, 기업과 단체 등과 연계하고 협력을 이끌어 낸다.
-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평가모듈도 개발한다.
- 참여 기업 및 기관은 평가를 거쳐 인증하고 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학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 학부모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년 2회 정도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시대적 변화를 알고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 참고 문헌 】

- 김진수, 박재환, 채명길 외(2009). 기업가정신 역량 평가지표 개발. 중소기업청 & (사) 창업진흥원.
- 배종태, 차석민(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 및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권, 1호, 109-128.
- 배종태, 차석민, 김영환, 이정우(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청 & (사)창업진흥원 최종보고서.
- 민경호(2001). 벤처기업과 기업가정신. 무역경영사.
- 오영미(2013).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윤준 외(2012).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2-11.
- 정차근(201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70호 이슈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nhrd.net
- 장수덕(2011).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차이: 기업수준에서의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4권, 3호.
- 차민석, 안상현, 이정우, 김영환(2012). 청년기업가를 위한 창업지원체계 설계와 정책방안 수립.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권 1호.
- 창조경제연구회(2013). 기업가정신 교육 혁신: 응답하라! 기업가 정신. 제 4회 포럼
- 허석재(2009).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경험과 요구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수경, 정화영(2009). 전문계 고교 창업교육(BizCool)이 창업인식 및 창업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4(4). (통권 14호)
- 한문성, 천규승 외 (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창업진흥원, 용역결과보고서.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2009). 청소년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창업진흥원 용역보고서.
- Drucker, P. F.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Harper& Row, New York.
- Timmons, J. (1990). New Venture Creations. Irwin. Homewood, IL.

교육부 보도자료(2013, 05, 29). 행복한 학교생활로 학생의 꿈과 끼를!

통계청 보도자료(2013, 12, 11). 고용동향 2013년 11월.

통계청 나라지표(2014, 03), 청년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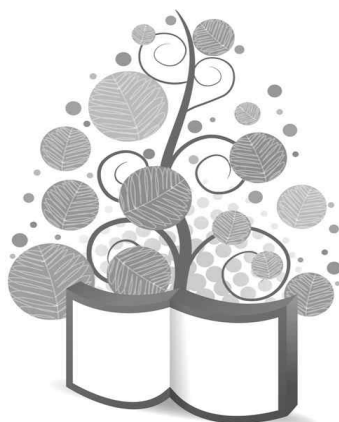
국무총리실(2013). 창조경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청년 일자리 지원, 발자취 돌아보기/경제

부흥 2013/07/16 11:23 <http://pmoblog.tistory.com/747>

발 표 4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 ▶ 발표자 : 김 세 광 (고신대학교 교수)
- ▶ 토론자 : 김정주박사 (모든학교 연구소장)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프로그램: 벤처스타 (Venture 'STAR')

김 세 광 (고신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전 세계교육은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 대세이다. EU의 오슬로 아젠다(2006)에 의하면 전 유럽국가의 기업가 정신 의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유럽국가의 3분의 2가량이 초등교육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경쟁력 최상의 국가들은 초, 중, 고부터 기업가 정신을 의무화 교육하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는 모든 국가에서 기업가 정신교육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였다(한문성 외, 2010:55-70, 87, 이민화, 2013:18).

기업가 정신의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적 추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의 실행은 아직 초보 단계이다. 기업가 정신 및 창업활성화 정책에 있어 국내 창업지원정책은 교육, 자금지원, 멘토링 및 창업보육, 패자부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 갖추어져 있으나, 실효성이나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초중고 대상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며 LINC(산학협력 선 도대학)사업 등을 통해 대학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유럽국가가 초등교육 단계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내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식전환 즉, 패러다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연구원의 2012년 정책연구에서 보면 청년 창업 지원정책 창업 교육.멘토링 시스템 구축하고 창업영재교실 운영 초, 중, 고 정규교과목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하나로 창업영재교

실운영, On-Off Line 멘토링 시스템 구축관련 전문가 멘토단 D/B 구축 및 관리, 온라인 상 멘토링 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이윤준 외, 2012:10)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5월 21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대학별 수요조사(4.16~21)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산업 기술대(5.23~25)를 시작으로 전국 37개 센터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신설·운영(센터별 25~50명 교육)한다고 밝혔다. '14년도에는 Kauffman 재단¹⁾(미국)의 PEV(Planning the Entrepreneurial Venture)를 우선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KAIST 등 지역별 과기특성화 대학의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과도 연계할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실시될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가적 실천과 다양한 시도가 청소년기에 필요한 전인적인 발달과 사회의 적응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가정신 교육 체계의 국내외 비교 국내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중·고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고등학교 교육에서 부분적으로 창업 및 기업경영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을 뿐이며, 학교 영역 내의 '비즈니스', '창업', '기업가정신' 교육 영역은 중소기업청의 '비즈쿨(Bizcool; Business School)' 사업이 유일하다.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실행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벤처스퀘어, 2013). 이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일부 단체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교육이나 진로교육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동그라미 재단, 카이스트 등에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재교육을 위한 과정이나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 위주이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양상은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 역량에 관련된 이론과 자료를 분석하고, 국외와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과관련 된 청소년 프로그램의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경제교육이나 실무적인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격적인 발달을 돕고

1) Kauffman재단: 1966년 설립(총 자산 2.5조원, '12년) 되어, 창업초기 기업 및 대학생, 청소년 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 비영리기관('93년부터 약 30만명 교육)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도전정신과 자기주도성의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두고 있다.

- 1)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요구되는 도전정신과 전인적인 성품을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2)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 적용을 위해 체험적·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 3) 청소년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교육과 청소년단체 등 관련 기관 연계되고 필요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 한다.

2.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절차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는 프로그램 개발 모형 중 Boone(1985)의 프로그램개발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프로그램개발의 영역을 프로그램 기획(program planning), 프로그램 설계(program design), 프로그램 실행(program implementation), 프로그램 평가와 보고(program evaluation & accountability) 등 네 개의 범위로 설정 되어 있다(김진화, 2009:141-142). 본 연구는 Boone의 모델에서 제시된 네 단계의 절차 중에서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되었다.

청소년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정 및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기획(program planning)

‘청소년, 기업가 정신, 창업역량’과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고 국내 외 사례연구와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미국(카우푸만재단), 유럽 사례 및 국내 모범 사례 중에서 동그라미 재단, 비즈쿨, 카이스트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기업가, 청소년창업교육 담당자, 기업교육담당자 등 현장교육담당자의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할 내용을 유추해 보았다.

(2) 프로그램 설계(program design)

청소년기업가 정신 & 창업역량 함양에 관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한 자료와 사례분석, 현장 교육담당자의 자문과 청소년의 전인성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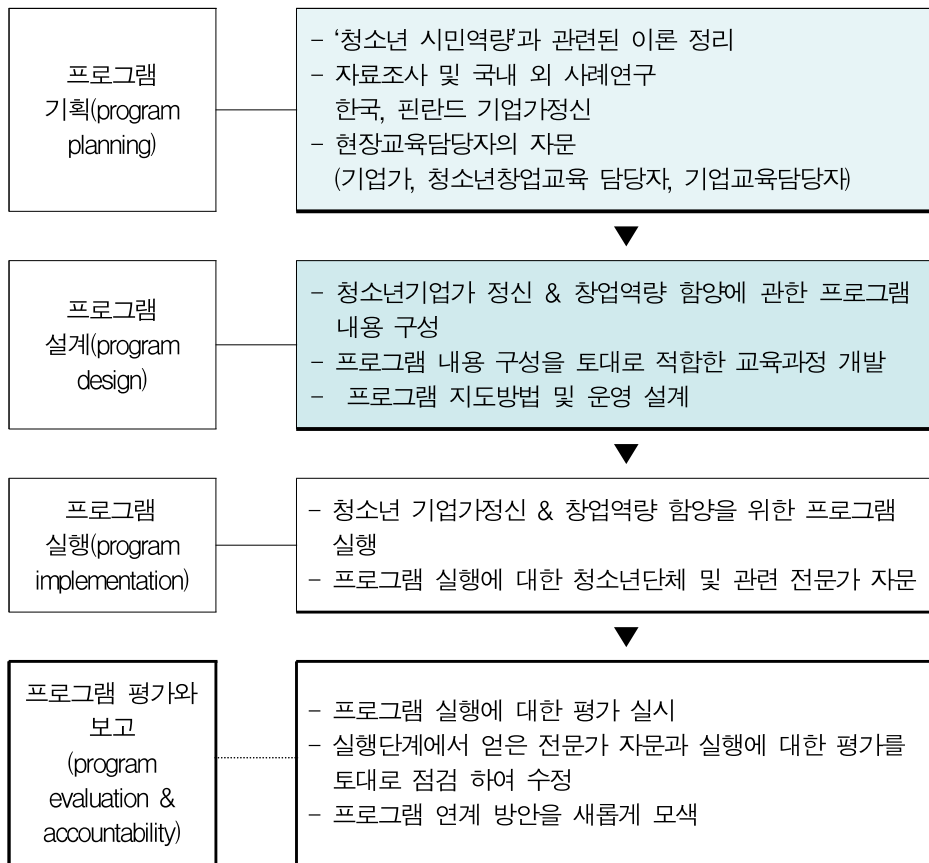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토대로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지도방법 및 운영 설계안을 정리해 보았다.

(3) 프로그램 실행(program implementation)

청소년기업가 정신 &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은 프로그램 개발 후 실행해 볼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실행 전 단계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다.

(4)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 & accountability)

프로그램 내용과 실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실행단계에서 얻은 전문가 자문과 실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검 하여 수정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전체적인 진행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

3.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원리

1) 청소년 기업가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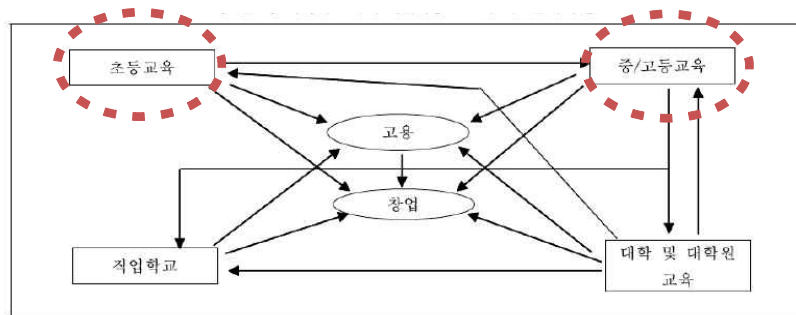
‘기업가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혁신 기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실리콘 벨리나 핀란드의 사례이다. 이것은 기업가 정신 교육이 학생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과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창업진흥원, 2009: 74).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 Stevenson(1983)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the pursuit of opportunity without regard to resources currently controlled)”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업가정신은 인간의 창조적 행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감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배종태·차민석, 2009:113-4).

무엇보다 이 같은 정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바탕위에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며, 실천을 위해 청소년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신“ 으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 직업교육과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도록 운영되고 있다. 창업이나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이현숙, 2013:32). [그림 2]에서 보면 해외 주요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시스템의 구성에서 초등교육과 중, 고등 교육이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초등교육과 중, 고등 교육의 축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2] 해외 주요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시스템의 구성(이현숙, 2013 :32)

2) 우리나라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실시 현황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화 되고 보편화 될 필요성을 앞서 논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은 여러 단체에서 시도하고 있고 긍정적인 사례도 볼 수 있다. 국외와 국내 청소년 기업가 정신에 대한 비교 연구와 국외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보고 연구는 많은 반면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실시 될 청소년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역량 프로그램이므로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 본 후 시사점을 통해 본 연구에 반영하고 자 한다.

(1) 비즈쿨

국내 유일의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비즈쿨을 비즈쿨은 Business + School의 합성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창업체험을 통해 미래 CEO를 양성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다.

작년 기준으로 135개 초중고교, 약 13만명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2002년 처음 개설된 이래 비즈쿨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이나 대학진학 등의 진로를 연 사례가 많다.

평소 앱 제작에 관심이 많았던 전우성 학생(18세)은 디지털 미디어고에 진학한 후 비즈쿨 교사의 권유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창업노하우 등을 익혔다 말하고 있고, 미래 컨벤션 사업 CEO를 꿈꾸던 대구관광고 출신 김상훈씨(19세)도 자신의 꿈을 키우는 데 비즈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동아마이스터고 김진필 학생(18세)과 익산고 김영미 학생(19세)도 눈에 띄는 ‘비즈쿨 CEO 키즈’로서 비즈쿨 교육이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청소년 비즈쿨-BizCool, 중소기업청,2014).

(2) 동그라미재단²⁾

청소년 교육의 시대적 요구는 진로교육이라고 여기고 청소년들에게 ‘일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업가정신(起業家, entrepreneurship)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고자하는 단체이다.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이란 자신의 꿈을

2) <http://thecircle.or.kr/home/>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

이루기 위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겠다는 용기와 결심, 그리고 이것을 지금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도해보는 현실적인 실천력, 그리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와 불굴의 의지력을 배우고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하여 자신의 꿈이 곧 자신의 일이 되는, '꿈=일' 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동그라미 재단은 매년 'ㄱ'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당선된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3) IP KAIST 영재교육원³⁾

카이스트의 IP 영재기업교육원은 “빌게이트(MS), 세르게이 브린(Google) 등과 같이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적 학습역량과 영재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국가 성장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 및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으로 영재교육차원의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토론 및 실제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 통찰력, 지식재산권, 기업가정신, 인문학적 소양 학습이 그들의 교육내용이며 모든 교육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4) 시사점

비즈쿨, 동그라미재단의 'ㄱ'자 찾기 프로젝트 공모전, IP KAIST 영재교육원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현황은 국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의 흐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비즈쿨이 진행하는 창업교육에 2013년 13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과 정책이세계적인 교육인 기업가 정신 교육과 프로그램의 저변확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그라미 재단의 'ㄱ'자 찾기 프로젝트 공모전을 보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를 파악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어서 그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성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나 이론 등이 밀받침 되어야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더러 있어서 일반적인 청소년지도사나 교사가 진행하기에는 무리인 경우가 있었다.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보다 '영재'교육원이라는 단체가 주는 선입견이다. 영재라고 판명 받지 않거나 자신을 영재라고 여기지 않는 일반 청소년들이

3) <http://ipceo.kaist.ac.kr/xs/about>

교육을 받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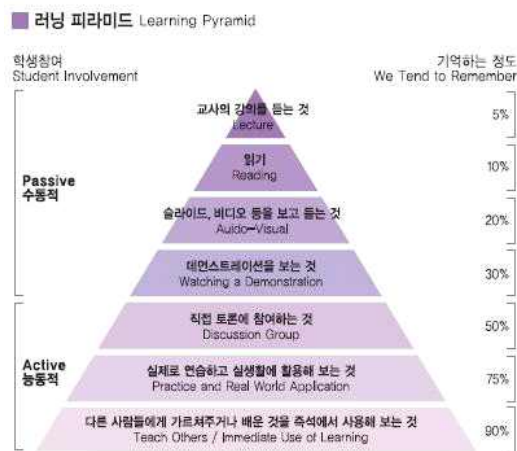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본 프로그램 개발은 청소년지도자들이 기본적인 연수나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3)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프로그램의 교육방법

(1) 체험적 학습

창업교육은 그 특성상 비정형적인 자유형의 교과과정에 기초하여, 흡수식 지식획득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와 행동에 기인한 체험적 학습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창업교육은 흥미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육의 성과를 위해서 평가되어야 할 중요 요소이며, 참여 학생의 흥미도는 동기부여를 자극하기 때문에 창업교육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강인애 외, 2011:156,159).

[그림 3]은 미국의 NTL(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가 출처로 되어 있는 학습 피라미드(learning pyramid)이다.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라고 하는 이 그림은 EBS에서 제작한 “왜 대학에 가는가?” 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되어 학습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가 되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야 실제 행동으로 해 본 경험이 더 높은 학습효과를 가져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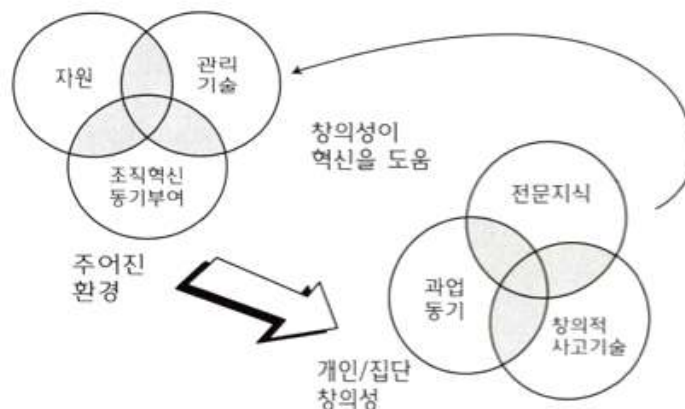


[그림 3] 학습피라미드, 출처 : <http://simrihak.tistory.com/90>

이러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의 특성을 기반으로 할 때, 필요한 역량과 기술은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 사업기획력과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모든 일을 선택,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기반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협동능력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도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과정을 통해 우수한 사업발표를 한 팀에게 긍정적 보상을 주는 등 적당한 경쟁상황 속에서 체험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강인애 외, 2011:160,171).

(2) 자기주도적 학습

아마빌(Amabile, 1997)은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을 연계하여 개인적으로는 내적 동기유발, 과업관련 기술과 창의적인 사고력이 요구되며 혁신에 대한 동기유발과 자원 및 혁신관리기술이 개인 및 조직의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과업 환경적 요소들이 개인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가치, 위험선호성, 할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믿음, 공격적인 전략, 능동적인 의사소통, 창의적 과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 등을 혁신동기부여의 주요 요소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그림 4]에서와 같이 개인지도의 방향이 창의성과 혁신의 가치를 직접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에 적합한 지도방법은 학습동기의 발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재인용:한국청소년개발원,2004: 181-182).



[그림 4] 창의성과 혁신의 구성요소 모델
(T.M. Amabile, 1997:53: 재인용,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182)

(3) 문제기반학습(PBL)

창업과 기업가정신 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적 측면에서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교육학적 이론(주로 PBL / CPS을 중심으로)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창업이나 기업가정신 교육에 있어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전략이 시도되어야 하며, 여기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송정현,2012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독자적인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교육학적 이론인 문제기반학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 PBL)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PBL은 지난 60여 년 동안 의학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다. 1950년대 중반에 McMaster 의과대학에서 시작된 교수 학습 방법이다(Geoff Norman, 2004).

PBL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의과대학이었지만 이후 경영, 교육,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었고,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등학교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PBL은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특히 21세기의 사회에서 고차원적 추론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기능, 문제해결력 등이 요구된다. 지식의 구성과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접목되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최정임,2007: 36 ; 최정임 · 장경원, 2010: 17).

김기태(2012:67-68)는 PBL의 설계 및 적용 사례연구에서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 중심학습법의 목적과 효과를 앞 선 연구들을(강인애 · 감미량 · 김선자 · 김종화, 2003: 75; Torp and Sage, 2002: 23-23)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다.

-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창의적인 높은 차원(higher-order)의 사고를 하게한다.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정의, 정보의 수집, 자료의 분석, 가설의

4) <http://wet-entrepreneur.tistory.com/593> 송정현의 기업가정신 세계여행 /칼럼: '한국의 기업가정신창업 교육 설계 및 평가에 대해'

설정과 검 증을 스스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learning how to learn)하게 한다.

- 단순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해가 가능해진다.
- 주어진 문제나 과제를 분석하여 그에 필요한 학습과제를 선정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찾아보고 그것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교실의 범주를 벗어난 자신의 실제 생활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시킨다.
- 동료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조화롭게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협력학습 능력 배양.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시킨다.

최근에는 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활용한 ePBL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PBL을 적용한 수업이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PBL은 전통적인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고차원적인 인지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한 방법이며 긍정적인 학습태도 및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최정임, 2007: 36).

② PBL의 절차

PBL의 형태와 절차는 PBL을 적용하는 대상과 기관의 특성, 학습목표, 교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PBL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초기 의과대학에서 활용한 PBL의 절차이며 PBL의 실행을 위한 공통적인 절차이다. 다음은 초기 PBL이 적용된 McMaster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최정임, 장경원, 2010: 22-33).

● 문제제시

- PBL의 첫 번째 단계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수자는 수업에 사용할 문제를 미리 준비해서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이 문제는 학습자에게 학습을 위한 관련성과 동기를 제공하며 문제 이해를 위해 전공 영역에서 학습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학습활동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는 실제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제시되어야 한다.

- 문제확인

- 문제가 제시된 후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결안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확인 단계에서 학습자는 소그룹별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서 요구되는 해결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와 수집을 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정보를 찾고 지식을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

- 문제 제시 단계에서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 문제해결안 발표

- 문제 재확인을 통해 그룹별로 최종 문제해결안을 만들어 각 그룹별로 준비한 문제해결안을 발표한다.

- 학습결과 정리 및 평가

- PBL 학습결과를 정리하며 학습결과와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학습결과와 평가는 그룹별로 제시된 문제해결안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수행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문제기반학습을 위한 학습 환경

PBL은 다양한 학습 환경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방법론이다. PBL은 학생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변화와 탐구 중심의 환경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그룹이 잘 구조화 되어 문제를 분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irsten R. Dalrymple · Alvin Rosenblum · Carol Wuenschell, 2007).

PBL 그룹의 목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특히 소그룹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고 소그룹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진행 과정이 PBL의 성패를 가른다. 그러므로 그룹 활동의 성공을 위해 학습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체계적인 문제해결 과정이 중요하다.

그룹의 활동은 집단 역학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 역학 혹은 역동은 변화한다. 효과적인 PBL의 진행을 위해 그룹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로 집단 역학을 이해할 수 있다(Are Holen, 2000: 486). 그러므로 PBL그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수자,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그룹의 구성원들 간의 역동과 각 그룹 간의 긴장감이나 경쟁 등을 PBL을 진행하면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적절하게 중재해야 한다.

4.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1)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1) 기업가적 정신의 요소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은 다르다. 기업가정신이란 기회포착과 관련된 사고 및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혼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동안 국내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한정적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교육 대상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기업가 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대상은 청소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사업적인 결과물 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창출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의 목적은 ‘기업가정신의 고취’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창업”은 기업가정신이라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벤처스퀘처,2013). 이러한 관점으로 청소년 기업가 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프로그램은 결국 창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생애 발달에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의 요소에는 기업가적 역량과 전문역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가적 역량에는 기업가적 포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배양시키기

위한 주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은 <표 1> 과 같다. 또한 개인의 전문역량 또한 필요하다. 전문역량에는 지식재산기반능력, 인지적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기술사업화능력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배양시키기 위한 하위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 기업가적 역량 및 교육내용의 하위요소

구분	하위요소	정의
기업가적포부	포부	기업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품고 지속적으로 몰입함
	글로벌 마인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며 자신의 관심분야와 사회기회를 해외로 확대함
	자기성찰	자기 스스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해 깊이 있게 반성함
	인문·사회·문화적 지식	기업가로서 종합적인 관점을 형성하는데 토대가 되는 철학, 사상, 역사, 예술, 문화 등에 대한 기본 지식획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가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
혁신성	문제해결지향	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
	고객지향	고객의 욕구를 찾고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
	관찰력	기존의 현상이나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
진취성	도전정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는 태도
	자기주도성	비전과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
	목표지향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위험감수	위험감수	어떤 일에 따르는 위험을 받아들이기 기회를 추구하는 태도
	모호함에 대한 인내	불확실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내하고자 하는 태도

출처: <http://www.venturesquare.net/42675> 벤처스퀘어: 벤처기업협회, 2012

<표 2> 전문역량 및 교육내용의 하위요소

구분	하위요소	정의
지식재산 기반능력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패러다임의 변화에서의 지식재산의 중요성 인식, 지식재산의 개념 이해
	지식재산기반 기술능력	지적재산권 창출에 대한 기술 능력
인지적 능력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	자신만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초학문 지식 확보
	분석적 사고능력	사물이나 현상의 함축된 의미를 단계적 또는 인과론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전략적 사고능력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 기회, 위험, 개인 및 조직의 강약점 등을 파악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함
대인관계 능력	협상능력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며 타협점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네트워킹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
	팀워크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기업가적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함
	시장조사 및 마케팅 능력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디어, 서비스, 제품의 개발, 가격결정, 판매 촉진, 유통 등에 대한 조사 계획, 조사 수행 능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능력	기업이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출처 : <http://www.venturesquare.net/42675> 벤처스퀘어: 벤처기업협회, 2012

(2)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와 성공적인 창업가들의 공통적인 특성

①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

송영수(2010:7-8)는 기업가 정신이 핵심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혁신(innovation)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혁신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들은 일반적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개방적 사고(open-mind)와 도전 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신사업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이끄는 혁신의 자세를 의미한다. 혁신은 창업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더 나은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 리더십(leadership)

기업가 정신의 요체 중 한 가지는 바로 리더십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는 셀프 리더십에서부터 타인을 독려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며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성공적인 기업가, 창업가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진취적이고 열정적이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추었다.

- 책임의식(responsibility)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혁신을 주도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여 임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이다. 창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② 성공적인 창업가들의 공통적인 특성

성공적인 창업가들에게 요구되는 공통적인 특성과 역량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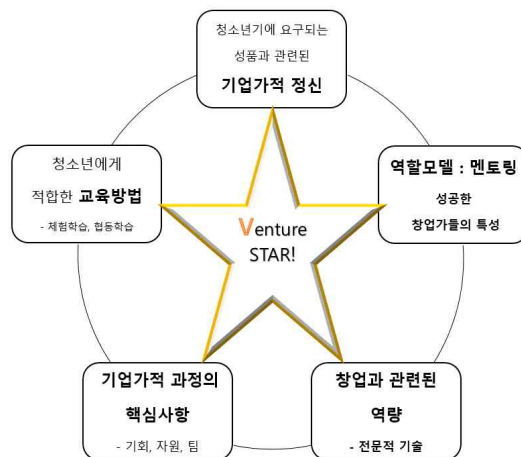
- 철저한 준비와 결단력 : 관심 분야에 대한 사업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고 또한 신속하게 행동에 옮김으로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강한 인내력: 창업가에게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끈기 있는 인내력이 요구된다.
-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리더십): 기회를 창출하고 솔루션범하며 자신 있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스스로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

- 사업에 몰입하는 집중력: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집중해서 몰입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창업의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작한 사업에 몰입해야 한다.
-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 노력, 지속적인 학습능력: 급변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 성공창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대의 흐름과 고객이나 시장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이미자·김중규, 2013:57).

(3)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면서 본 프로그램의 명을 ‘벤처스타(Venture Star)’로 명명하고자 한다. 벤처스타는 기업가 정신의 기본적인 개념과 청소년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인 체험학습, 협동학습, PBL을 프로그램의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기업가적 과정의 핵심사항인 기회, 자원, 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성공한 창업가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역할모델을 설정하여 셀프멘토링, 지역사회 멘토링을 실제로 실시하고자하는 원리로 구성 되었다. <그림 5>은 벤처스타 프로그램의 전체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5]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2) 청소년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앞서 논의된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와 성공적인 창업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해 보면 기업가 정신의 핵심요소와 성공적인 창업가들의 특성은 교차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더십과 책임의식은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창조적 혁신을 위한 학습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과 관련한 핵심적 요소를 기반으로 <표 3>의 벤처스타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성되었다.

<표 3> 벤처스타 : 청소년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구성 및 근거

벤처스타 주요 주제	기업가정신	창업역량	성공한 창업가들의 공통적 역량
1. 기업가 정신	기업가적 정신과 포부를 갖기 위한 기초적인 인식 - 자기성찰과 도전정신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인내와 고통이 수반됨을 인식,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모색함	철저한 준비와 결단력
2. 혁신과 극복	기업가 정신의 기본 원리인 진취성, 도전정신, 혁신성	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	강한 인내력 집중력
3. 창의적 실천	인간관계, 협상능력, 팀워크 10,000시간의 법칙: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능력 배양 분석적, 전략적 사고능력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 노력, 지속적인 학습능력
4. 벤처스타 리더십	기업가정신의 실천과 창업을 위한 기업윤리	경제실무 정리, 적용, 실천	기업가로서의 가치관, 자신의 가치를 브랜딩하기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을 기반으로 ‘벤처스타’ 12회기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을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벤처스타 : 청소년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함양 프로그램 12회기 주제 및 내용

3) VENTURE STAR : 청소년 기업가정신 & 창업역량함양 프로그램

“VENTURE STAR” 전체 프로그램 중 “11회기 : 나의 브랜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중등학생용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시간은 120분이다.

<표 4> 청소년기업가정신 & 창업역량함양 프로그램 11회기

나의 브랜드		
주요 내용	나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기	
중점실천 영역	나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끌어 낸다.	
프로그램 목적	자신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창조성을 발휘한다.	
□ 대상 : 중학교 2~3학년		□ 진행 형태: 소그룹 지도 방식 (20명~40명 내외)
★ 프로그램명 : 나의 브랜드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도입	30'	요즘 ‘대세’라고 하는 브랜드는 무엇인지 브레인스토밍하기 - 베스트 5 선정하기 - 이 브랜드가 베스트로 뽑힌 이유를 적어보기
전개	40'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실제적인 방식을 이해한다.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아주 일상적이며 쉬운 방식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표정과 용모, 태도, 말씨를 체크해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본다. - 거울놀이 해보기
적용 및 정리	20'	자신만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다음시간 과제로 제출한다.

5. 나가며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새로운 도전이며, 기업가정신의 실천 자체가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이 되었다. 청소년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청소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며, 실천을 위해 청소년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신“ 으로 정의하며 연구가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 개발자의 능력과 정책, 선행연구를 참고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하는 도전이 되었다.

프로그램개발과정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창업적, 창조적 과정이다. 역량의 한계에 도달할 때 마다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현재의 자원이나 능력을 뛰어 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시도’이다. 이제 출발점에 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전인성과 도전정신, 자율성의 회복을 위해 시도이다. 청소년이 이 사회에 단지 적응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본 프로그램은 먼저 제시한 프로그램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생한 프로그램, 기업가 정신의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의 의미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 김기태(2012) . 경영학 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의 설계 및 적용 사례. 『질서경제저널』. vol.15. 4. 63-85.
- 김승경 외(2013).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미래사회협동 연구총서. 창조경제 종합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화(2009).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서울:교육과학사.
- 김연정·노병수(2012),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vol. 10, 6.
- 유봉호(2013),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 강인에 김현우 황선하(2011),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의 '글로벌 창업교육캠프'사례연구, 경제교육연구, vol. 18, 2. 153-183.
- 정연우 ,반성식(2008). 청소년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Vol.3 No.1. 45-67
- 이민화(2013), 기업가 정신 교육혁신, 창조경제연구회 제 4차 포럼 연구보고서, 창조경제연구회 13-42.
- 이병욱(2004), 창업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과 분석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vol. 29, 2. 1-11
- 이윤준 외(2012),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2-11.
- 이현숙(2013),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 vol.23. 2. 22-33.
- 배종태 (200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육성방안. 한국경영관련학회 하계통합 학술대회 자료집: 국가브랜드와 국가경쟁력, 1-7.
- 배종태, 차민석 (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청 세미나 자료집: 기업가정신 심포지엄.
- 배종태, 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한국중소기업학, 31(1), 111-128.
- 송영수 (2010).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 서울: 자유기업원.
- 안선영, 김희진 (2011). 창업, 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연구보고 11-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정임(2007).대학수업에서의 문제중심학습 적용 사례연구: 성찰일기를 통한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Vlo. 2, 2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청소년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서울: 창업진흥원.

한문성, 천규승, 안웅, 원성권, 강영규, 고종남 외 (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연구. 서울: 창업진흥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7). 청소년지도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Are Holen(2000),The PBL group : self- reflections and feedback for improved learning and growth, Medical Teacher, Vol. 22, No. 5, 485-488p

Dale, E. (1946) Audio-visual methods in teaching. New York: The Dryden Press.

Kirsten R. Dalrymple · Alvin Rosenblum · Carol Wuenschell(2007). Educational Methodolgies. PBL Core Skills Faculty Development Workshop 1. Journal of Dental Education71(2) 249-259.

<http://wet-entrepreneur.tistory.com/593> 송정현의 기업가정신 세계일주, 2012, 9, 4 컬럼

<http://www.venturesquare.net/42675> 벤처 스퀘어

김재연(2013),Kauffman foundation 기업가정신교육,

<http://www.educ.ualberta.ca/staff/olenka.Bilash/best%20of%20bilash/dalescone.html>

<http://www.kauffman.org> 카우프만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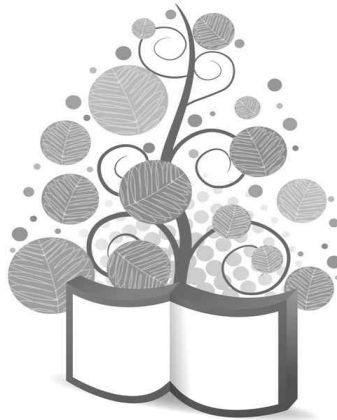
<http://www.entrepreneurship.org/Resource-Center.aspx> 카우프만재단 기업가정신 / 자료실

<http://ipceo.kaist.ac.kr/xe/about> IP KAIST 영재교육원

발 표 5

청소년 창업의 성공 및 실패 요인

▶ 발표자 :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성공 및 실패 요인에 관한 고찰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시작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부족과 이로 인한 청년 고용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창업을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등 대체로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안선영·김희진, 2011:81)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창업활동이 활발한 사회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 2009). 기업가정신 함양이나 창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know-how)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을 진로지도의 한 분야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사고와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청소년 창업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변화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방안에 관한 교육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출 수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한 노력이 창업으로 연결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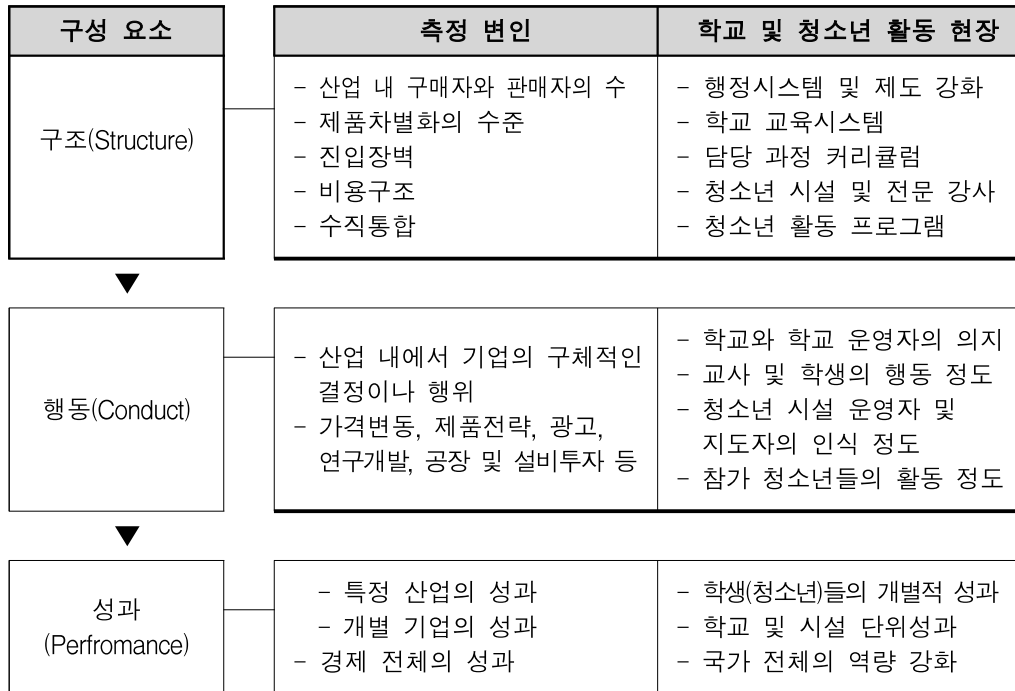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창조경제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역량과 인재상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우리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창업과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개념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약화 및 창업 애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창업의 실패요인과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시키고 창업에 필요한 역량개발을 위한 접근 방법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선진사례 중 미국과 핀란드의 지원시스템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창업이론과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관한 논의

1) 창업이론(S-C-P 산업구조 모형)

특정한 산업 내에서의 성과(performance)는 산업구조(industry structure)와 경쟁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이론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SCP 모형은 기업가정신 교육 시스템의 구조(Structure)에 따라서 학교와 학생의 행동이 달라지고 기업가정신 교육의 성과(Performance)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하규수, 2013:58). 또한 이 모형을 청소년 활동 현장에 적용할 경우, 청소년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내용, 운영지도자와 참가 청소년들의 활동 정도 등에 따라 기업가정신 함양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출처: 하규수(2013).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교육의 방향: 해외사례를 중심으로(p58)내용을 재구성하였음.

[그림 1] 청소년 창업 구조화 모형

2) 기업가정신의 약화 및 창업 애로 요인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1970년대 산업발전 초기에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에 부응하여 재벌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발현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벤처 붐을 타고 다양한 사업 유형이 생겨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험하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크게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를 겪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배종태·차민석, 2009:112).

기업가정신 정의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Stevenson(1983)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the pursuit of opportunity without regard to resources currently controlled)”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의 실천적인 측면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가정신은 인간의 창조적 행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계

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감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배종태 · 차민석, 2009:113-4).

한편, 벤처기업인이 꼽은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저해 원인은‘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로 인한 사업기회 감소’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엔젤투자 등 초기창업자금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행에 대한 인식 및 시스템 부족’, ‘벤처 투자 등에 대한 회수기회 부족’, 위협기피 추세 확대’ 으로 조사되었다(이윤준, 2012:88).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창업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창업 절차 등 창업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멘토가 없기 때문’, ‘ 창업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 부족 때문’ 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청년층이 창업 시 겪는 주는 애로사항은 창업자금조달과 창업교육 및 멘토의 부재 등이라고 볼 수 있다(이윤준, 2012:88).

결국 대학(원)생과 벤처기업인 두 그룹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주된 약화 요인 및 창업 시 주된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부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업실패로 인한 위협기피 추세가 확대되는 현상과 연계하여 추론해 보면, 창업자금은 창업 실패 후 신용불량 요인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원과 투자 중심의 자금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업가적 과정의 주요 성공요인을 요약해 보면, ① 기업가의 경험, 리더십, 몰입 및 경영 능력, ② 다양성을 포함한 기업가의 네트워크 능력, ③ 창업팀 멤버들 간의 조화와 시너지, ④ 성공적인 패턴인식을 통한 매력적인 기회 파악, ⑤ 기회의 창이 열려져 있을 때의 정확한 시점 포착, ⑥자원투자의 최소화, ⑦ 외적인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배종태 · 차민석, 2009:113).

또한 벤처기업인은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로 인한 사업기회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창업자금 다음으로 창업교육 및 멘토링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두 그룹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청년층의 창업과 기업가정신 함양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 확대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이윤준, 2012:89). 동시에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관련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관련 집단 간의 상생 멘토링으로 발전되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 기업가정신 활성화 및 약화 요인

활성화요인	약화요인
1. IMF와 같은 국가 위기 극복과정에서 창조적 파괴와 적응력에 바탕을 둔 기업가정신 발현 계기 2. 부모의 교육열과 정부정책에 의한 고급인력 양성 3.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역할모형(role model)’으로 작용 4. 산업화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벤처 육성, 새로운 사업모형 등장, 기업가정신의 발전 등으로 전개됨 5. 1990년대 이후 기회창출과 벤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6.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한 발전, 조직간 인력이동 등 민간 부분의 자생적 발전과 역동적인 역할 7. 외국의 경험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학습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함	1. 반기업 정서, 노사갈등, 기업규제 등 경제외적으로 기업가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 다수 존재 2.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에서 성숙기 경제로 이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기회 감소 3. M&A등 다양한 회수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벤처 투자에 대한 회수 기회가 IPO(기업공개)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투자를 약화시키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킴 4.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벤처 붐이 식은 후 기업가들의 위험기피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5. 벤처기업 중 경영능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우수한 창업팀을 가진 기업이 부족 6. 대기업, 중소기업간 불합리한 사업 관행도 여전히 상존 7. 대학의 역할과 역량,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전문성, 제조업 공동화 우려 등 산업구조의 변화,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지원 하부구조와 아키텍처(architecture), 문화 등에서도 미흡

* 출처 : 배종태·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p124-5)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음.

3. 창업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 고찰

1) 창업 실패 요인 및 대응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혹은 창업을 준비하는 잠재적인 사업가들 모두에게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한국과 핀란드 청소년의 창업에 대한 인식비교’결과를 보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동의수준은 평균값 5점 만점에 3.20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안선영·김희진, 2011:50).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먼저, 사업실패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비금전적인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일단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사업을 중단하려고 해도 사업종결과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이 불안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 실패로 인해 조기폐업과 영업수익률 부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상공인진흥원(2012) 자료에 따르면 5인 이하 사업장이 적자가 28.6%에 이르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 사업장도 5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2012)의 조사에 따르면 약 10명이 창업을 했을 경우, 2~3명 정도만 사업에 성공하고 나머지 7~8명 정도는 실패한다는 것이다(이미자·김중규, 2013:57).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이 창업을 통해 단기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사전에 철저한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실패 사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 시점에서 창업을 저해하는 일반적인 요인으로 높은 창업 실패율,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벤처캐피탈 시장의 기능 위축,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등이 지적되고 있다(하규수, 2013:46-8).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확산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창업의 부정적인 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 노력과 함께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창업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박동 외(2010)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34.0%)’, ‘창업실패 시 재정적 부담’, ‘경영 및 기술 부족(11.6%)’, ‘창업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창업 활동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창업교육의 활성화(29.9%)’를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창업 활동 자금 지원(26.4%)’, ‘창업 활동 관련 정보 제공(23.0%)’ 등의 순이었다(박동외, 2010:82). 이러한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시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과 대학원생 중 86.4%가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이 중 창업교육을 경험한 학생은 21.9%에 불과한 실정이다(박동 외, 2010, 이윤준, 2012:90 재인용). 따라서 실질적인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과정과 실질적인 경험, 그리고 관련 기관의 보육과정 및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링 과정이 병행된다면 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청소년들에 대한 창업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업 진입장벽(entry-barrier)의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퇴출 장벽(exit-barrier)과 사업종결비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에는 창업가들이 사업종결시 부담해야할 금전적 비용, 비금전적 비용, 그리고 제도적 시스템 불안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이나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실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하면서 이들이 부담해야하는 실패 비용에 대한 명확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하규수, 2013:44).

이러한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창업 실패의 과정과 손실 비용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창업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실패한 창업가의 경험을 거울삼아 유사한 실패를 피할 수 있거나 실패확률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사업종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창업과 관련된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2) 창업 성공 요인

창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자 자신의 의지와 역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인이 현재까지 축적시켜온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망한 아이템을 구상해야 한다. 유망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분야와 시장 상황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미래트렌드 변화를 예측함과 동시에 수요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기획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자원지도(resource map)를 구체적으로 완성하여 단계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창업가들에게 요구되는 공통적인 특성과 역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미자 · 김중규, 2013).

첫째, 철저한 준비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관심 분야에 대한 사업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고 또한 신속하게 행동에 옮김으로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강한 인내력을 발휘해야 한다. 창업가에게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끈기 있는 인내력이 요구된다.

셋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기회를 창출하고 솔루션수범하며 자신 있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스스로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사업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집중해서 몰입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창업의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작한 사업에 몰입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능력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 성공창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대의 흐름과 고객이나 시장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

초기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창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성공적인 사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바이그레이브(Bygrave)는 기업가적 성공을 위한 9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박동 외, 2010:37-8 재인용). 신규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상급의 기업가를 창업자(founders)로 선정하고 그들 중심으로 뛰어난 관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틈새시장(niche markets)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결정은 빠르고 신속하게, 오픈 마인드(open-mind)를 갖고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끊임없는 혁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조직은 가능한 한 적은 관리 계층을 가진 수평적 조직인 동시에 기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객과 부품 공급업자 그리고 근로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원들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Bygrave, 2004:25).

성공한 기업가와 실패한 기업가의 차이에 대해 김성수(2007)는“성공한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저서에서‘정신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성공한 사업가는 도전과 개척정신, 근검절약과 신용제일주의, 신념의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다. 반면 실패한 사업가는 지나친 욕심과 낭비, 불성실과 신용결여, 피해만상과 인내력 부족, 도전과 개척정신 및 신념의 결여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이미자·김중규, 2013:5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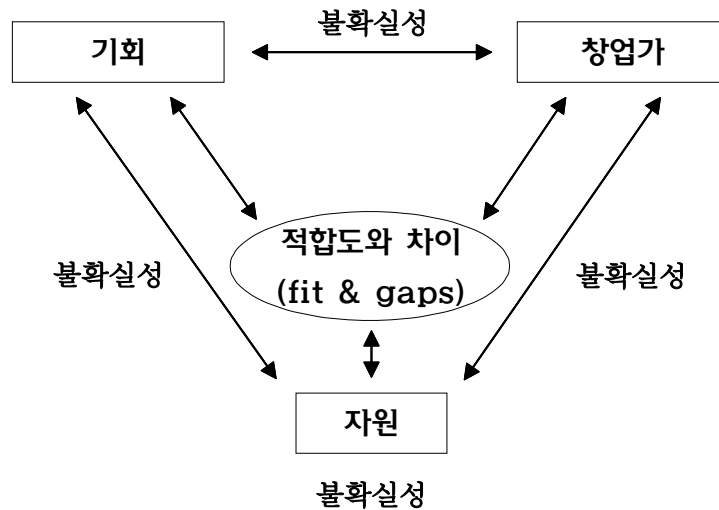
한편, 기업가정신은 신속한 환경 대응과 혁신적인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제품 개발과 서비스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가적 행위는 생산 활동에서 마케팅과 재무관리의 전반에 건친 기업경제를 활성화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춘우,1999:37-42,이미자·김중규, 2013:59, 재인용).

첫째, 기업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둘째,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도전력이 있어야 하면 도전적인 창업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까다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객 지향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셋째, 혁신력으로 기업의 위협요소를 발전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요소 중 특히 위협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장기적 사고력으로 단기 업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종업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초기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제시한 기업가정신과 같은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자원과 기회 등을 포함한 외부 환경 요소와의 관계 설정을 명료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창업에 관한 티몬스(Timmons, 1990)의 성공 모델[그림]을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의

성공에는 기회(opportunity), 기업가(뛰어난 관리팀), 그리고 회사를 시작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자원(resources) 등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박동 외, 2010:36 재인용).



* 출처 : Timmons(1990), 박동 외(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p36)에서 재인용.

[그림 2] 티몬스의 창업 성공 모델(Timmons model)

우선 일등급의 유능한 관리 팀 구성을 중심으로 훌륭한 기업가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장 기회는 초기 창업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창업가는 가급적 동일 산업 혹은 유사 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며, 예산가 이윤, 손실 등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관리 경험도 중요한 산업적 노하우(know-how)가 될 수 있다. 바이그레이브가 지적하듯이 중요한 것은 창업 과정에서의 행운도 다른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곳에서 찾아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실행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창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Bygrave, 2004:5, 박동 외, 2010:36-7 재인용).

또한 성공한 창업가는 자신이 소유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초기에는 수익은 낮게, 생산성은 높게, 그리고 자산 소유권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초기 창업가는 자신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최소화하여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유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업 실패 시 자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핀란드와 미국의 청소년 창업지원 사례와 시사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박동 외, 2010:158-162)의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창업 관련 국내외 몇몇 사례들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추진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청소년의 지식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따른 위험요소 및 실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는 과거 실패한 경험 자체도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하여 한두 차례의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에게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향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창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창업 단계뿐만 아니라 창업 보육 전단계(pre-incubation)에도 학생이나 연구자가 금전적인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서도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층의 도전 정신이 희박하고 위험을 기피하는 사회적인 풍조가 만연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한 번의 실패를 용납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창업 분야에서 패자부활전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성숙되지 않아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좀처럼 재기의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수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창업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여전히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핀란드처럼 창업에 따른 위험과 실패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체계적인 창업 교육 기회 확대, 다양한 아이디어 선발 기회 제공, 다양한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창업 보육 및 벤처 창업 관련 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창업자가 커다란 금전적 부담을 갖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공간적으로 산업 시설과 학교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청소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연구자, 사업가 등이 언제든지 만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그리고 특허 기술 개발 및 관리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는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UC버클리대학 등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핀란드는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에서 알토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기관 등이 일체가 되어 청년 지식기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특히 학생과 기업인이 언제든지 구내식당 등에서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으로 산학 융합 활동이 구조화 되어 있다.

셋째, 학교 및 청소년 활동 현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나 핀란드에서는 ‘기업가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혁신 기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과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함양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역동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며,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창업 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정규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핀란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창업 교육을 수강한다. 미국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은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민간 주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교사 인증(교육 수준 보장)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창업진흥원, 2009: 7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창업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여

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상태이고,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신기술 창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핀란드의 경우처럼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산업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송매체 등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역 기반 기업들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상시적인 만남을 장을 개척하여 상호이해 노력을 지속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단위 평생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초경제 상식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을 확충시켜나가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 수준에서는 미국의 대학 사례와 같이 창업 관련 과목의 정규코스를 개성하여 학점과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실제 지식기술 창업과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 창업 단계와 창업 유형별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과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에서는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창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나 대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혁신 생태계를 토대로 실험실에서 곧 바로 창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아이템을 가진 학생들 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업 동아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서도 지역 상공회의소 및 벤처 자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정보 공유,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관리 기법에 대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창업을 실행하는 학생들은 이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창업 유형에 따른 창업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 중에서 창업 활동에 본격적으

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전문계고를 비롯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창업 동아리 집단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와 같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곧 바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술 및 재정지원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앙단위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연계하여 이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그리고 창업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시스템 구축도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청소년 기업육성과 자금관리 등의 투자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의 청년 실업률 개선에 위한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승경, 김명희 (2013).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창조경제 종합연구 13-01-23).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연정, 노병수 (2012).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6), 23-31.
- 문영백 (2011). 혁신형 중소기업의 전략적지향성이 지적자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동 (2013). 창업정신 고취를 통한 청소년 도전 문화 조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꿈을 향한 청소년, 도전하는 청소년-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미나, 67-87.
- 박동, 김수진, 이종선 (2013).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기본연구 2013-32).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 김안국, 황규희, 이종선, 이봉주 (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기본연구 2010-10).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배종태 (2009). 대학으로부터의 창업촉진과 기업가정신 육성방안. 한국경영관련학회 하계통합 학술대회 자료집: 국가브랜드와 국가경쟁력, 1-7.
- 배종태, 차민석 (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청 세미나 자료집: 기업가정신 심포지엄.
- 배종태, 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한국중소기업학**, 31(1), 111-128.
- 송영수 (2010).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 서울: 자유기업원.
- 안선영, 김희진 (2011). 창업, 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연구보고 11-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영화 (2013). 지식창조사회에 부합하는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미와 효과: ICT서비스를 활용 한교육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꿈을 향한 청소년, 도전하는 청소년 -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미나, 1-19.
- 정미란 (2011). 와인소비자의 문화적 가치와 와인선택속성, 만족도 관계연구 : Hofstede이론의 적용. **외식경영연구**, 14(1), 223-242.

정영호 (2013).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기업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감정 조절 능력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정희재 (2011). 중소기업 CEO의 정신건강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2009). **청소년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서울: 창업진흥원.
한문성, 천규승, 안웅, 원성권, 강영규, 고종남 외 (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연구**. 서울: 창업진흥원.

벤처스퀘어 <http://www.venturesquare.net/42675>

[부 록]

청년 CEO를 꿈꿔라. -20대 벤처대표 9인의 창업스토리

(주) 레인디 김현진 대표

- 첫째, 자신을 파악하라. 자기가 투자자가 되고 싶은지, 사업가가 되고 싶은지, 자영업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샐러리맨으로 살아가는지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둘째, 겁먹지 말라. 학벌이 좋고, 돈이 많은 것이 사업을 처음 시작 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 구글맵 기반으로 지역정보 검색인 ‘플레이스트리트’를 서비스 하는 회사.

(주)아이토닉 박성준 대표

- 아이디어와 상품이 좋으니 무작정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지, 어디서 소비자를 만나고,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또한 아이디어가 단가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아이디어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
- 우리 회사의 중심은 ‘사람’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것을 실현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결론은, 아이템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이템에 매달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

...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3D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클로즈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주) 바이미 서정민 대표

- 창업을 고려하면서 사업아이템을 찾을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다음의 세 가지는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보통 젊은 창업자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의 능력을 냉정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관심분야에서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슈가 되는 아이템을 결정하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셋째, 진입장벽 만들기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분야에는 누구나 들어오기 힘든 것을 만드는 것이다.
- 어떤 회사에 입사할 때 채용계약서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는지 알 수 있다. 동종업계에서는 일할 수 없고, 동종업계에서 창업할 수 없다는 조항뿐만 아니라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채용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 누구나 자신의 디자인을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디자인 스토어를 제공하는 회사.

(주) 에듀플로 박광세 대표

- 노하우와 경험을 배우겠다는 목적이 있다. 목적 있는 직장생활은 수동적이지 않다.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일까지 찾아서 하게 된다. 그래야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사람과 자본이 모이게 된다. 하지만 그 사업 아이템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정장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치가 제로다. TV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대박을 만들 수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드는 끈질기고 지루한 과정은 생략한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다.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회사.

(주) 메가브레인 이강일 대표

- 사업을 하면서 지금당장 할 수 없는 것, 지금 당장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없다면 안 된다. 물론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놓쳤다면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든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멘토는 매우 중요하다.

... PMP, 핸드폰, 인터넷 강의에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회사.

(주) 엔써즈 김길연 대표

-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팀 셋업에 투자를 많이 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회사가 클 수 있다.
- 직원들이 버티려면 자그마한 성공을 만들어 가야한다.

... 세상의 모든 동영상을 검색하고, 파일 정보를 알아내고, 콘텐츠의 유통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

(주) 클로 버추얼패션 부정혁 대표

- 사업은 아이템 한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는데 10가지 성공요소가 존재한다면 아이터은 그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9개를 무시한 채 한 가지 아이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아이터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고, 굳이 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굳이 사업으로 진행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 초창기 창업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은 사업에 대한 철학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그런 철학을 가진 기업이 많지 않다. 바른 기업을 만들기보다는 큰 기업, 돈 많이 버는 기업을 만들도록 강요되어 온 산업화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기업가정신, 사업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어느 정도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성공을 지속할 수 없다.

... 인터넷 환경에서도 의상 시뮬레이션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류 산업에 접목한 회사.

(주) 위자드웍스 표철민 대표

-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불이익이 많았다.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갔지만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버스회사를 예를 들면, 신촌에서 인천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 단지 신촌-인천행 버스가 아니라 하루에 몇 번 운행하고, 요금이 얼마고, 어떻게 수익이 날지를 분석한다. 그러면 본인 주위의 모든 것이 사업아이템이 될 수 있다.
-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 창업을 하려면 만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가 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돌아보면 분명히 자기가 만 시간을 투자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사업아이템으로 정하는 것이다. 아이템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 이미 만 시간을 투자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주눅들 필요 없다. 규모가 작으면 실패도 작다.
-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꿈이 생겼다. 우리 회사가 존재함으로 해서 세상이 조금은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이 즐겁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 위젯 및 스마트폰 서비스 전문업체.

(주) 위버스마인드 정성은 대표

-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저것 하겠다고 덤벼들지 마라.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했으면 그때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집중해서 확실하게 만들고 그 위에 확장을 고려하라.
- 하고자하는 일을 정했으면 최소 1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년 후 지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처음 시작할 때 1년 후 어떤 상황이 되면 지속하지 않겠냐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이드라인에 걸리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 사업을 시작하려면 4가지를 갖춰야 한다. “사람, 아이템, 재무적 안정, 노하우”
- 우리 회사에는 3가지 비전이 있다. “고객만족, 가치집중, 기업가정신”

... 고객만족, 직원만족, 사회기여를 비전으로 하는 교육-엔터테인먼트 기업.

자료집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인 쇄 2014년 6월 12일

발 행 2014년 6월 12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